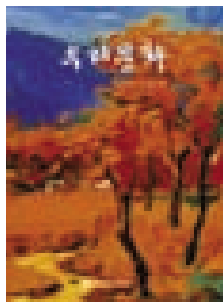


02	문화원의 날	
04	문화원탐방	경기 남양주문화원
08		평창문화원
12	연재 I	문화원장에게 듣는 우리나라 이야기
17	문화원이야기 I	포천문화원
21	문화원이야기 II	합천문화원
23	함께 읽는 시	당신이 보고 싶다
24	함께 읽는 수필	서복(徐福) 석각과의 만남
27	특집	실버, 삶을 즐기다
28		고령화 사회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33		행복한 실버를 꿈꾸는 유쾌한 하루
37		'실버문화축제 2008 전주' 축제대문 열렸네!
43	기획)한국의 문화	한국의 제의례 ①
49	연재 II	아리랑 _ 충청도 아리랑의 가락과 함께
54	연합회레이더	문화원 이모저모
81		책갈피
86		우리문화 소식
91		원장동정



표지그림.우리산촌의 가을풍경
그린이 이원달 강동문화원장
1990년 제작
Oil on Canvas, 53cm × 40.9cm

등록번호 서울마02984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www.kccf.or.kr 전화 02)704-2311~3 팩스 02)704-2377 발행·편집인 최중수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정호(진도문화원장), 김중(광주 서구문화원장), 정주환(어린이문화진흥회 이사장), 최원현(한국수필작가회 회장) 편집주간 채강희 편집팀장 문선희 편집·디자인·인쇄 (주)장안인쇄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300-2 전화 02)2267-7642~3 팩스 02)2274-8332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2008 문화원의 날, 그 힘찬 도약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

서울 중구문화원(축제 및 문화행사) 대전 유성문화원(인력양성 및 교육)이 수상했다.(각 상패와 상금 200만원) 개인 창의활동 부문에서는 이계홍(동두천문화원) 광명희(청원문화원) 허모영(김해문화원) 씨가, 개인 언론부문

지난 2007년 문화원의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2007 문화비전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와 함께 매년 10월 10일을 '문화원의 날'로 제정했다. 지방문화원은 이 날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각종 시상 및 슬로건을 만들어 지역문화(향토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유도, 대내외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올해 문화원의 날에는 전국 223개 지방문화원의 역사 및 활동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 고장 홍보관을 마련하여 문화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제 1회 문화원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 1부 서막은 정읍문화원 '수제천 연주단'의 공연이었다. 이어 남해문화원의 '다문화공연팀'의 축하공연과 홍보동영상 상영이 이어졌다.

2부에는 내빈 소개 후 국민의례와 이복웅 전북도지회장의 문화비전 선언문 낭독과 2008 대한민국 문화원상 시상식이 있었다. 대상에는 강원도 강릉문화원(트로피와 상금 700만원), 우수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남해문화원 다문화팀의 공연



강북구립실버합창단



사회를 맡은 오정해 씨



송하진 전주시장의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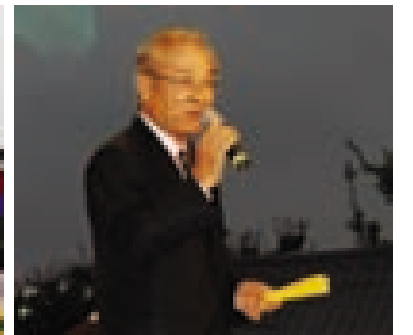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강봉석 문화정책국장의 격려사



이복웅 전라북도지회장의 환영사



표재순 추진위원장



홍보대사 이순재 씨

에서는 김홍두(울산매일) 씨에게 상패와 상금이 각 100만원 씩 수여됐다. 문화협력 부문에 최선길 도봉구청장에게 상패 수여가 있었다.

문화원상 제정목적은 각 문화원의 활동에 대한 독려로 우수문화원 지원 사업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부여,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문화원 활동과 프로그램을 DB화하여 전국문화원에 확산시켜 활용토록 하는 데 있다.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의 인사말과 문화체육관광부 강봉석 문화정책국장의 격려사를 이어 송하진 전주시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복웅 전라북도지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전국의 지방문화원이 한곳에 모이면 우리나라 문화를 볼 수 있다. 앞으로 매년 문화원의 날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다양한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뜻깊은 날로 발전될 것으로 믿는다. ☘

남양주 문화의 두 뿌리

남양주문화원, 진접문화의 집을 다녀오다

시장에 가면 옷도 있고 생선도 있고 신발도 있고... 그렇게 부르는 노래를 떠올려 본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앞서 열거된 내용을 기억해 부르는 놀이인데, 남양주에 와보니 왠지 저 노래가 떠오른다. 남양주에 가면 문화원도 있고 문화의 집도 있다. 남양주에서 문화를 만끽하려면 이 두 군데 중 하나를 가면 된다는데 그 소문을 쫓아가 보았다.



남양주 문화원

남양주는 서울의 연장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가까이 하루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그래서일까. 도시의 한낮은 한산하다. 큰 대로변에 있는 남양주문화원은 바로 옆에 경찰서에 법원까지 한 자리에 있으니 찾기가 수월했다. 남양주문화원은 10월이 가장 바쁜 때다. 바로 다산문화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에서는 제법 큰 문화행사라 신경을 여간 쓰는 게 아니다. 운영하고 있는 향토사료관은 신축으로 인해 작년 12월 말로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지역의 향토 문제에 관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곳이 바로 남양주문화원이다. 이창수 원장은 문화원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곳은 서울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편이라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문화시설이 발전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냐, 조금만 나가면 바로 서울의 문화시설을 즐기기가 너무 편하거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문화든 뭐든 가장 발달해 있는 한 지역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요. 우리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남양주는 특히 전통민속놀이발굴 사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마을 회의 등 어른들이 모인 곳이라면 쫓아가 영상취재 및 녹취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가락을 채취하고 불러주신 말들을 소중히 모아 그냥 스러지는 전통문화가 아니라 이어지는 문화가 되길 소망한다고.

남양주는 왕의 릉이 여러 개 된다. 문화만 쫓는 이들에게는 문화만 보이는 법. 얼마 전부터 이 원장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고. 광해군묘와 광릉, 홍릉, 사릉과 같은 묘들은 그 양식이 풍부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대한제국에 대한 연구와 고증을 바탕으로 이 왕릉과 함께 남양주를 역사로, 또 문화로 조명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는 별로 보여줄 게 없다고 생각되어진 지역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문화를 살려 관광지화 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체적인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한다.

남양주문화원은 작은 사무실이 두 개다. 원사가 없는 건 비단 남양주문화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문화원의 문제지만 공간이 없어 문화강좌도 하나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남양주문화원의 숙제이다.



남양주문화원의 식구들
좌로부터 직원 한봉석, 윤덕규 국장, 정민정 간사

진접문화의 집

남양주문화원이 이 지역의 문화사업을 도맡아 한다면 생활속의 문화는 누가 돌보고 있는 걸까. 그런 의문들이 남양주문화원에서 차로 40분 거리의 진접문화원의 집을 찾게 했다.

생활 속 문화체험공간인 진접문화의 집은 2000년 9월에 개관을 했으니 남양주에서 꽤 긴 역사를 자랑하는 셈이다. 남양주에는 별다른 문화시설이 없어 문화강좌 등의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운영이 계속 되다가 2007년 1월 남양주문화원의 위탁을 받으면서 지역의 네트워킹을 더욱 단단히 다지게 되었다. 문화원에서는 각종 사업으로 남양주의 문화를, 진접문화의 집은 문화강좌 등 체험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특히 진접문화의 집은 2008년 1월부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남양주시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향유를 제공하고 있다. 40여 개의 지속적인 문화교실과 더불어 수시로 공연 및 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해 두고 있다고.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은 목련뜰 무대 공연으로 다양한 공연으로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숨 쉴 틈도 없이 뻘뻘하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진접문화의 집에서 수강생들



진접문화의 집 도서관 광경



진접문화의 집 발전방안을 위한 워크숍



한강원류를 찾아서 온가족이 떠나는 여름여행

남양주의 보석 같은 두 공간

진접문화의 집에서는 매주 일요일에는 영화상영회도 열린다. 이곳이 남양주의 극장의 역할도 해내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와 인근 병원과 연계, 매주 건강 강좌를 열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생태학교 '꿈꾸는 민들레'를 통해 환경 생태 문제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제 2기 남양주시민미술학교에서는 서각, 우리 꽃 그리기, 민화, 한지공예, 전통색채학 등의 강좌를 열어 참여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활 속의 문화공간을 슬로진으로 내세우는 진접문화의 집의 반대에서는 남양주문화원이 시의 많은 문화 사업을 위탁받아 하고 있다. 남양주의 가장 대표적인 다산문화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밖에도 향토순례단을 올해로 11회째 맞이했으며 천마산 산신제, 관내 능 기신제까지 남양주의 문화 사업을 거의 도맡아 하는 셈이다. 안팎으로 남양주의 문화를 책임지는 두 곳이다. 적은 인원으로 바쁜 사업을 해내느라 늘 바쁜 걸음이지만 남양주문화원은 늘 기대한다. 더 재밌고 알찬 사업을 했으면 좋겠노라고. 남양주 문화의 든든한 두 뿌리가 더욱 깊게 내려 많은 문화의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해본다. ☺

평창의 '한치 뒷산 곤드레 딱죽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름 모양이 길기도 길다. 평창에서야 척 하면 척 알아들을 법한 단어이지만 서울 촌놈들은 제목만 들어서는 고개 좀 가우뚱하겠다. 술술 '한치 뒷산 곤드레 딱죽이'가 궁금해 가만 못 있겠다. 어디 한번 무슨 뜻인지 물어나 보자.



서늘한 가을 기운도 물리치는 열정

시골에서 이 정도면 한밤중이다. 이미 사위가 어두워져 불이 켜진 곳이 아니면 발 디디기도 불안할 판. 저 멀리 건물의 불빛을 쫓아 성큼성큼 어둠을 몰아내 본다. 건물 2층에 들어서니 제법 넓은 강당에 어르신들이 가득하다. 비도 조금 뿌린 데다 가을 초입이라 서늘한 기운인데 이 안은 열기가 가득해 땀이 날 지경이다. 과연 그런지 땀방울을 훔치는 어르신들도 제법 있다.



평창문화원 고창식 원장

듣고 있자니 거의 요즘 신세대 랩 저리 가라 할 만큼 빠른 템포인데도 누구 하나 틀리는 사람 없이 공연이 진행된다. 후렴 부분만 겨우 알아듣다가 몇 번 들어 내용만을 짐작해본다. 전체가 25분 분량의 제법 긴 양인데도 거의 막힘이 없다. 간혹 아닌 곳에서 튀어나오거나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그들에게는 여흥이다. 소를 흥내 내는 어르신에게는 괜한 채찍질을 하고, 두 발로 걷는다고 핀잔도 주고, 그러다가 이내 다같이 까르르 웃는다. 틈이 보이면 그 틈으로 타고 들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아라리의 진면목. 당신이 부르는 때가 아니어도 잘 보이지도 않는 저 구석에서 연기를 하느라 다들 분주하다. 시선은 곡조 뽑는 이에게 머물 법도 하건만 다들 쉬지 않고 연기를 펼치는데 눈을 가만 둘 틈이 없다. 여기 보느라 저기 보느라, 이거 보고 웃느라 저거 보고 웃느라 가락 소리는 더 잘 못 듣는다.



민초들의 삶을 노래로, 평창 아라리

나중에 들으니 ‘한치 뒷산 곤드레 딱죽이’의 전모는 이러하다. 한치 뒷산이라 일컬어지는 ‘청옥산’은 평창의 이름난 산이다. 예로부터 청옥산에는 곤드레, 딱죽이, 참나물 등 산나물이 많았다. 어려운 시절 봄철 보릿고개를 넘으려면 이 산에 올라 부지런히 나물을 뜯어야 했다. 허기로 지친 몸을 끌고 산에 올라 그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가락을 푸는 일밖에 더 있었으랴.



‘한치 뒷산(청옥산을 가리킴)에 두 치 곤드레/ 아지미 맛만 같아도/ 고것만을 뜯어를 먹어도/ 봄 살아나지’

가난하고 배고팠지만 긍정적이고 다부졌던 우리 조상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가락이다. ‘고것만을 뜯어를 먹’ 으면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던 우리 조상들의 흥이 짙게 배여 난다. 한치 뒷산에 올라 곤드레 딱죽이를 뜯으며 삶과 여흥을 이었던 우리 조상의 이야기인 셈.



평창문화원이 감자꽃 스튜디오를 만났을 때

2006년 처음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열었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의 눈부신 결과가 있을지 누가 알았을까. 평창아라리 보존 전승을 위한 노력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은 2006년 실버문화사랑축제에서 우수상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기존의 평창아라리를 수개월에 걸쳐 조사 채록하고 8악장 3소절로 매듭을 정리해 평창아라리 가사로 정리했고, 감자꽃스튜디오와 연계해 춤사위와 소리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감자꽃 스튜디오는 폐교된 노산분교를 생활친화적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된 곳이다.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뿐 아니라 외부의 문화예술인에게도 그 통로를 열어두고 있는 평창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다. 원래 학교라는 공간이 그러했다. 아이들의 교육 장소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해냈고, 때로 운동회라도 열릴라 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 즐기는 공간이 되었다.

평창문화원, 감자꽃 스튜디오의 만남으로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다. 평창 문화의 입구요, 출구인 셈이다. 문화의 길이 잘 닦이고 연계가 활성화 되는 일이 문화의 성장에 큰 몫을 해내는 것일 거다.

밤은 깊어 가는데 공연 연습은 지칠 줄도 끝날 줄도 모르게 계속된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고 장단을 맞추면서 하는 모습이 강사 빠친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이분들 중 20여명은 지역 강사로 초·중·고등학교 평창 아라리를 전승하는 데 한 몫씩들 해내고 있다.

노래하는 삶, 이들의 삶을 누가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가는 만큼 그들의 삶도 진해지는 가을의 문턱이다. ☼

과학과 문화가 숨쉬는 도시, 大田



대전(大田)의 순 우리말 이름은 「한밭」이다. 한밭의 ‘한’은 ‘크다’ ‘밭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 곧 ‘큰 밭’ ‘밝은 뜰’ ‘드넓은 땅’이라는 의미로 풀이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대전의 땅 면적은 대도시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넓은 면적(539.79km²)을 보유하고 있다. 大田은 또 태전(太田)이라고도 불리었는데 이 역시 ‘큰 밭’이라는 이름이어서 대전이 지금처럼 대도시로 뻗어나갈 가능성을 지닌 땅이었음을 가늠케 한다.

「93대전엑스포」, 「대덕과학연구단지」로 잘 알려진 대전은 도시로서의 성장속도가 그 어느 도시 못지않게 빨랐다. 대한민국정부 수립후인 1949년8월15일 일제때 이름인 대전부(大田府)가 대전시(大田市)로 개칭될 당시 대전의 인구는 126,704명이었다. 6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지금의 대전인구는 1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니 도시로서 급팽창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모든 도시에 과거 역사가 있듯이 대전 역시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숱한 사연과 역사가 배어있는 고장이다. 지금은 둔산 행정타운이 조성된 둔산(屯山)지역과 대전의 3대 하천 중 하나인 갑천(甲川) 유역에서 구석기와 신석기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대전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임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대전시 서구 괴정동과 탄방동에서는 오래된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희귀한 청동기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대전은 또 산성(山城)으로 둘러싸인 도시이기도 하다. 무려 40개 가까운 산성이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산성이 많은 것에 착안해 대전에 산성축제를 제안하는 아이디어도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한다. 이처럼 대전에 산성이 많은 이유는 굳이 역사학자가 아니더라도 짐작이 가는데 즉 삼국시대 이곳 대전이 백제의 국경선이자 고구려, 신라 역시 이곳을 차지하고자 했던 요충지라는 것이다. 대전의 구릉을 따라 형성된 산성들은 대부분 금강과 금강

에서 발원된 대전천, 유등천, 갑천을 내려다 보고 있는데 외적이 이곳을 건너오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적 의도임을 짐작케 된다. 삼국시대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전략적 요충지 대전은 한국전쟁 당시 또다시 남북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격렬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미군과 우리 군은 대전을 지키기 위해, 인민군은 또 속히 부산까지 점령하기 위해 대전에 포탄을 퍼부었다. 대전은 그때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대전의 이같은 군사적 중요성은 그 후 80년 대까지 군사도시로서의 면모로 이어졌고 오늘날 3군 본부가 입지해있는 계룡대와 자운대 그리고 국립묘지가 자리하는 인연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공군교육사령부가 있던 대전을 잊지 못하는 전우들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 퍼져있다.)



1993년 대전엑스포

대전은 또 조선조 기호학파의 학자들이 활동했던 주무대였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대덕구 송촌지구는 송촌(宋村)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듯 송씨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다. 북벌을 주장한 효종을 도왔던 조선중기의 거유(巨儒)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과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1606~1672)이 학문과 경륜을 펼쳤던 곳이 바로 계족산 아래 지금의 송촌지구였다. 율곡 이이(栗谷 李珣)의 학풍을 이어받은 기호학파는 퇴계 이황(退溪 李滉)의 학맥을 전수받은 영남학파와 더불어 조선성리학의 큰 흐름을 이루었다. 그런데 영남학파의 주류를 이루던 동인이 당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관계에서 떠나자 서인이었던 기호학파가 조선후기 관계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호학파는 벼슬보다 학문이 높은 학자들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이 고장 대전이 대덕연구단지와 많은 대학의 고급두뇌집단이 모여드는 물줄기를 터왔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금도 송촌아파트일대를 지나칠 때면 조선유학의 성지(聖地)가 사라졌음을 아쉬워한다. 병풍과도 같은 계족산자락아래 거유 우암과 동춘당을 비롯한 숱한 성리학자들의 체취가 배어있는 이 일대를 조선시대 유학의 명소로 만들었다면 더할 나위없는 관광지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그것이다.

유구한 역사가 서려있는 대전이 도시로 탈바꿈되면서 쉬임없이 성장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인(動因)



1993년 대전엑스포

했다. 행정의 중추기관인 도청까지 옮겨오면서 이제 대전은 교육시설과 금융기관 및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시가지가 형성되는 등 도시로서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오늘날 대전을 근대도시라 지칭하고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충남 도청 자리에 근현대사박물관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도 대전의 이 같은 태생적 모습에 기인했다고 해석된다. 그래서 대전의 구도심은 우리나라 근대기의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인 것이다.

교통의 중심지, 행정의 중심지로 성장한 대전은 1970년대 또 한 번의 변화에 직면하는데 다름 아닌 대덕연구단지의 건설과 함께 과학기술도시로 변모한 것이다. 지금은 대덕특구로 불리던 대덕연구단지는 지난

은 역시 일제의 침탈이란 아이러니에서 비롯됐다. 서구열강의 동양지배란 세계사적 흐름이 이름 없는 한촌(寒村)에 머물러 있던 대전을 일약 도시로 내몰았던 것이다. 1905년 경부선철도가 개통되고 1914년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대전은 철도의 교차지로 떠올라 일본인은 물론 한국인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 허허벌판에 철도가 놓이면서 대전역 일대는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철도부설과 함께 대전을 대도시로 만든 역사적 사건은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한 일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대전이라는 도시가 자신들의 식민지통치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격적으로 도청을 대전에 이전기로 결정하고 1932년 5월 30일 지금의 충남도청사를 완공한 후 성대한 축하행사까지 개최

1973년 1월 17일 당시 박정희대통령의 과학기술처 연두순시업무보고에서 서울 홍릉연구단지에 이은 「제2연구단지의 건설시안」이 보고되면서 박대통령이 연구학원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면서 비롯됐다. 그해 5월 제2연구단지의 입지를 당시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면, 탄동면, 구죽면(지금의 대전시 유성구) 일대로 결정하면서 대덕연구단지가 건설되었다. 840만평의 방대한 면적에 400여개에 이르는 각종 연구기관과 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이곳 대덕특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이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대덕연구단지의 연구 성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대덕단지와 함께 대전을 전 세계에 알린 빅 이벤트가 1993년 열렸는데 대전세계박람회 즉 대전엑스포다. 이 대전엑스포는 국내 외 관람객 1500만 명을 기록, 단일 행사로는 국내최대의 인파가 몰린 행사였다. 「새로운 도약에의 길」(The challenge of a new road to development)란 주제가 말해주듯 대전엑스포는 대전을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준 최대의 행사였다. 대전엑스포는 대전의 도시기반은 물론 대전의 문화수준과 시민의식도 한꺼번에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구석기시대부터 삶의 터전이 돼온 대전이 실제로 도시로서의 면모를 키워온 기간은 지난 20세기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전은 신흥도시란 닉네임이 따라붙었고 또 사실 대전의 성장역사는 철도가 개설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자연부락이 커지면서 토착민이 중심세력으로 성장한 타 도시와 달리 대전은 토착민은 별로 없고 외지인들이 모여들어 이루어진 도시이다 보니 흔히 '주인 없는 도시'란 별명도 얻게 되었다. 전국 각지 출신들이 모두 모여 사는 곳, 그래서 대전은 서울 다음으로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인 것이다. 이러한 대전의 인구구성비율로 인해 연거푸 당선되는 선출직이 드물다는 선거괴담이 나오기도 했으며 지방색이 희박하다는 평을 들어야 했다. 그럼에도 대전은 자연재해가 적고 3대 하천과 계룡산을 비롯한 보문산, 계족산, 식장산, 금병산 등 산으로 둘러싸인 뛰어난 자연환경을 지닌 지리적 이점으로 하여금 전형적인 충청도 기질을 지닌 대전 사람들을 배출, 대한민국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1993년 대전엑스포

한때 대전을 문화의 불모지라고 불렀다.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대전출신문화예술인 가운데 전국적인 인물이 많았다는 점을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다. 특히 미술인들은 하나의 맥을 이룰 정도로 많았으며 음악분야도 사물놀이로 유명한 김덕수를 비롯해 술한 음악인들이 대전에 서 배출되었다. 대전은 또 지방정부 최초의 시립전통음악 전승기관을 설립한 지역인데 故 연정(燕亭) 임운수 선생의 국악 사랑을 모태로 1981년 7월 14일 개원한 대전연정국악연주단이 그 주인공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에는 초대형 공연장인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전시장, 도서관 등 200개가 넘는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도시로 자부할만하다. 대전의 문화예술은 이제 과거의 불명예를 씻고 또 다른 비상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문화와 예술은 어떤 측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해 내야하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어쩌면 세계적인 문화도시의 새로운 전형을 창조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갖게 된다.

대전의 이 같은 문화도시로의 기대감을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예언해 왔는데 류인학은 「우리명산 답산기」계룡산 편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계룡산(鷄龍山). 이 산은 세상을 구하고 새 시대를 열어줄 대성자(大聖者), 구세성인(救世聖人)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절한 꿈이 가득 서려 있는 산이다. ... 옛 선지자들은 북한산아래 자리 잡은 한양의 지기가 쇠약해지면 계룡산이 도읍지가 되리라 예언했다. 또 계룡산으로 서울이 옮겨오면 훌륭한 인물들이 무수히 나와서 아름다운 문화가 활짝 꽃피는 이상사회가 건설되리라 보고았다. ...” 필자는 한양 즉 서울의 지기가 언제 쇠약해져 계룡산이 새 도읍이 될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아울러 그런 날이 또 언제인지 역시 전혀 가늠할 능력이 없다. 다만 계룡산이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땅으로 일컬어져 왔으며 새 시대에는 태평성대가 열리면서 문화와 평화가 강물처럼 퍼져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을 뿐이다. 아울러 우리 선지자들의 예언이 언젠가 실현된다면 계룡산 자락아래 펼쳐진 드넓은 뜰 대전은 새 시대를 열어줄 인재들이 출현하는 서기어린 땅이며 이들이 높고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우는 문화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대전이 세계적인 과학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면 반드시 문화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대전 사람들의 생각이다. 세계인들이 대전으로 몰려온다면 결국 거기에 맞는 문화예술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대전 엑스포 때 전 세계 문화예술인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



— 조성남 대전시지회장/대전중구문화원장

동·서문화의 길목

찬란한 문화유적의 보고 - 터키

- 경기도 문화원장 해외문화유적답사



성 소피아 성당

한여름의 작열하는 태양이 온 세상을 녹여 버릴 듯 뜨거웠던 지난 7월 중순, 고도 1만 미터 상공을 시속 9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12시간을 날아서 우리 일행(경기도 문화원장 해외문화유적 답사단)은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약 9천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터키는 남쪽으로 지중해, 북쪽으로 흑해, 서쪽으로 에게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여러 나라와 연해 있으며, 남한의 8배에 가까운 78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인구 8천만이 살고 있는 적지 않은 나라이다.

예로부터 많은 종족들이 그들의 자취를 남기며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는가하면 이들이 이룩한 문명의 결정체들은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박물관’으로 지칭할 만큼 경이로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다양한 종교, 전통, 풍습 그리고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의 유목문화와 수천 년을 내려온 토착문화가 융합되어 이룩된 거대한 문화가 그들이 사랑하는 터키의 문화다.

지정학적으로 터키는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위치에 있는 나라다.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이 각축하는 길목에 서 있는 터키 영토의 97%를 차지하는 아나톨리아는 기원전 7세기 말에 페르시아인들의 통치를 시작으로 기원전 3세기의 페르가몬 왕국을 거쳐 로마 제국의 전성시대, 그리고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 말까지 위용을 떨친 셀주크 제국, 14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지속되었던 찬란한 오스만 제국에 이르는 동안 제국들은 부침을 거듭했으나 그들이 쌓아놓은 문화유산들은 오늘날 세계인의 관심과 발길을 모으고 있다.



톱가프 궁전



루멜리 히사르 요새

터키의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성당, 블루모스크, 톱카프 궁전과 돌마바흐체 궁전을 비롯, 에페수스의 사도요한의 교회와 무덤, 셀수스 도서관, 아프로디시아스의 문, 안탈리아의 페르게, 그리고 괴뢰메 야의 박물관 등 역사 깊은 문화유적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런 나라다.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을 가진 성 소피아 성당은 4세기에 처음 세워진 후 몇 차례의 소실과 복구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으며, 처음 916년간 교회로 사용되었으며 그 후 481년간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다가 1935년 박물관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비잔틴 시대의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이스탄불의 건축물 중 최고의 걸작으로 칭송받는 박물관이다.

“술탄 아흐멧” 사원으로 알려진 블루모스크 사원은 고대 “히포드럼” 옆에, 그리고 성 소피아 성당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다.

여섯 개의 첨탑과 돔의 배열, 그리고 명암이 있는 99가지의 푸른색 타일과 반원형 돔들은 독특한 자태를 보여준다.

톱가프 궁전은 15세기 중반부터 50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거주하던 성으로써 행정의 중심지였던 이 궁전은 궁전 정문 앞에 있는 거대한 대포 때문에 “TOP(대포) KAPI(문)”로 불렸으며 궁전의 총 면적은 약 21만 평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보스포루스 해협을 따라 찬란한 오스만 제국의 영화를 자랑하는 돌마바흐체 궁전은 아름다운 카펫과 샹들리에, 그리고 많은 그림들로 장식된 부의 상징이다.

루멜리 히사르 요새는 술탄 아흐멧이 1452년 축성한 요새로써 3개의 탑과 이 탑을 따라 연결된 성벽으로 되어 있다. 1953년 콘스탄티노플 정복 500주년을 기념하여 복구되었으며, 여름이면 이곳에서 웅장한 콘서트가 열린다.



블루모스크



안탈리아의 페르게



아프로디시아스 (테트라필론문)



사도요한의 교회와 무덤



고려메 야외박물관

사도요한의 교회는 소아시아의 서쪽 에페수스에 자리하고 있다. 사도요한은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예수 사후 성모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 에페수스에 왔다. 그는 이곳에서 초기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에 일생을 바쳤다.

교회에는 3개의 회당이 있었으며 본당의 동쪽에 사도요한의 묘가 있다.

고대 카리아의 가장 중요한 정착지였으며 부유한 공동체 사회였던 아프로디시아스는 기원전 3000년부터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여 로마시대에 전성기를 누렸으며, 기원전 1세기에 지어진 신전은 비잔틴에 의해 교회로 전환되었으며, 신전으로 가는 기념문인 테트라필론문은 로마 건축물 중 걸작으로 꼽힌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그리스의 영웅들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전해지는 페르게는 기원전 2000년 아케아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기원전 7세기경에 그리스인들에 의해 점령당한 후 기원전 2세기부터 로마의 지배가 시작되어 수백 년간 지속되었다.

괴뢰메 야외 박물관이라 불리는 괴뢰메 계곡에는 4세기경부터 기독교도가 살았다. 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슬람교도의 탄압이 심해지자 기독교도들은 계곡에 바위동굴을 파고 교회와 수도원을 만들었다.

지금도 이곳에는 400~500개의 동굴사원이 흩어져 있다. ☼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사진작가

합천문화원, 중국 곡부시(曲阜市)와 문화교류 체결



합천문화원(원장 차판암)은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경 차판암 원장과 합천군 문화공보과 추찬식 계장을 비롯한 임원 등 일행이 중국 산둥성 곡부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합천문화원과 곡부시 간의 문화교류에 대한 상호 의향서를 교환하였다.

이날 의향서를 교환하는 자리에는 차 원장 외에도 합천군 4개 향교의 전교가 배석했으며 상대측에서는 곡부시 인민정부 양봉동(楊鳳東) 부시장과 이유생(李有生) 곡부시 문화유산관리국장과 공덕화(孔德和) 문화국장 등 6명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양 부시장은 '곡부시 인민을 대표하여 합천문화원 관계자들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공자의 고향인 곡부는 중국내 24개 명성문화유적의 하나로 공자의 유가사상이 세계 인류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쳐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화교류 의향서를 살펴보면 첫째, 대한민국 합천군문화원과 중국 곡부시 문화유산관리위원회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우호관계를 결연토록 한다.

둘째, 문묘제례단, 문예공예단, 방문단, 연수생 및 예술지도교원을 서로 파견한다.

셋째, 정기적으로 문화정보, 문화 동태를 요해하고 문화 서적과 음반, 테이프 등을 교류하며 미술, 촬영 전람회를 가진다.

넷째, 합천군문화원과 곡부시 문화유산관리위원회는 정기,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다섯째, 본 의향서는 한글과 중문을 병행하여 4부로 작성되어 있으며 동등한 효력을 발생하고 쌍방 대표가 서명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한·중 양기관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유사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교류 속에서 특히 유교사상의 분야에서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이번 문화교류의향서 체결에 동행한 일행 29명은 6월 24일 평택항에서 풍양패리호 편을 이용하여 다음날 밤에 곡부에 도착, 6월 26일 아침 태산 관광을 마치고 곡부시에 있는 공자의 사당을 견학하였으며 돌아오는 날인 6월 27일에는 공자묘소를 참배하는 것으로 중국에서의 일정을 끝내고 그 다음날인 6월 28일 오후 2시에 평택항에 귀항하는 4박5일간의 강행군을 마쳤다.

이로서 합천문화원과 곡부시 문화유산관리위원회 간의 문화교류를 촉진시키고자 문화교류 의향서를 교환함으로써 향후 양 단체간 문화교류를 비롯해서 공동번영을 위한 활발한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당신이 보고 싶다

가을은

언제고 옆길로 다가와서

여러 가지 색깔로 수선을 피우며

산자락에 온통 물감을 칠해 놓고

시치미를 떤다.

그 후로 잠잠하다

한 잎, 또는 무리져 떨어지는 잎새들이

속깊은 이야기를 주절대지만

눈길도 주지 않고 돌아서 간다.

인연으로 얹힌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떠나고 나면

고적한 이곳에 홀로 남아

스산한 바람속에서

서러운 사랑을 키워가게 되리라.

그리고 싹이 터 자라는

초록의 아침을 그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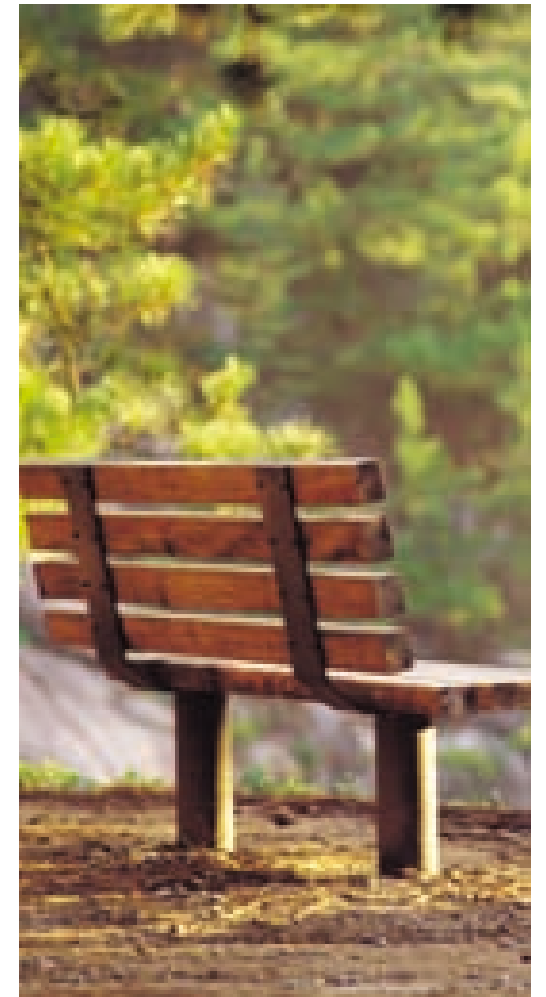
하늘이 멀어지고 깊어질수록

몇 번이고 경험하게 되는 일이지만

젊은 날 첫사랑으로

아직도 눈물이 핑 도는

이, 가을날....



정재권 청양문화원장/시인

南海 紀行 3 : 서복(徐福) 석각과의 만남



비가 내린다. 바람도 동반했다. 비닐 우비를 입고 우산을 펴 들었다. 나무 사이 돌 틈, 꼬불꼬불 비탈진 계곡 길을 따라 남해 금산(錦山)을 오른다.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얽힌 설화가 깃든 영산, 이 산에서 이성계가 100일 기도 끝에 조선을 개국, 임금으로 등극했다고 전한다. 비단으로라도 감싸주고 싶도록 고맙고 은혜로운 산, 보은의 마음이 일어 태조 이성계는 본래의 보광산을 금산으로 개명해 주었다고 한다. 성도 호도 임금이 하사하면 감읍하던 시절, 산 이름을 하사 받은 남해 주민들에겐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 영산에서 서복도 기도를 올리며 불로초를 찾아 헤매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서복 석각을 만나기 위해 한 시간 여의 버스 길, 남해의 절경들은 비에 젖고 안개에 묻혔다. 서포 김만중이 유배생활을 했던 섬 중의 섬, 노도 역시 아스라이 보일 뿐 진면목을 들어내지 않는다. 하지만 문화해설사를 능가하는 남해문화원 하 국장의 해설, 미모와 재치가 어우러진 입담은 안개에 가린 명소들을 가슴으로 끌어들이었다.

상주면(尙州面) 양아리(良阿里) 금산 기슭,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등산로, 제주의 서북학회 회원들에게 특별히 길을 열어주었다. 1.5킬로미터 지점에 신비 속에 가려져 아직까지 해독이 불확실한 석각(石刻) 서복과차(徐市過此)를 찾아 빗길을 오른다. 15분이면 족할 것이라고 이호균 남해 문화원장은 말했지만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듯싶다.

비는 줄기차게 내린다. 비탈진 좁은 돌길은 그지없이 미끄럽다. 조심조심 숲길을 가며 오솔길을 덮은 나무들을 걸눈질한다. 우거진 잡목 잎사귀에 비 듣는 소리, 새들의 간헐적인 울음소리가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라산에서 흔히 만나는 참나무, 소나무, 삼나무도 띄엄띄엄 보인다. 제주 오름이나 들에서 흔히 자생하는 멧개낭도 만난다. 반갑다. 그놈을 마음으로 어루만지며 산을 오른다. 발이 축축하다. 신발에 물이 스민 게다. 비가 온다했으니 방수화를 준비했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한 발 앞서 걷던 S회장이 미끄러져 주저앉았다. 깜짝 놀라 일으키려고 다가서니 이내 일어선다. 다치지나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그저 웃고는 앞서 산을 오른다. 세수 80이 코앞인데도 맨 앞에 서서 그룹을 선도하니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산을 오르기 시작해서 20여 분이 지날 무렵 ‘쉬어갑시다.’ 하고 누군가 소리를 지른다. 따라오기에 힘이 부치나 보다. “이런 우중에 산을 오르다니 미쳤어.” K회장이 내 옆에서 투덜거린다. 스스로 계획한 행사 일정이지만 날씨가 너무 험하니 자신을 스스로 꾸짖는가 보다. 길을 안내하는 이 원장은 저만치 앞서 산을 올라가다 돌아서서 어서 오라 손짓을 보낸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20도 쯤의 경사를 이루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는 커다란 화강암, 그 바위 위에 올라섰다. 글씨인지 그림인지 분간할 수 없는 석각,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모인다.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서복을 만나는 듯싶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와 어떤 인연을 지었기에 오늘 이 우중에 그의 흔적을 만나는 것인가.

안내를 자임하고 나선 남해문화원장의 설명에 귀를 모은다. “서복은 자기 일행들이 거주했거나 잠시 머물러 간 곳에 그들만이 알 수 있는 형태의 표식을 남겼을 것으로 봅니다. 이 석각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

한 해석은 구구합니다. 향토사학자 이청기는 ‘서불기배일출(徐市起拜日出)’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정인보 선생은 훈민정음 이전의 한국 고대문자로 ‘사냥을 하러 물을 건너와 이곳에 기를 쫓다.’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인도의 데세판데 박사는 고문자가 아닌 선각(線刻) 즉 ‘이곳은 어른의 사냥터임’이라고 표시한 그림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글안족의 문자 같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만 무성할 뿐 완전한 해독이 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진시황 시대, 삼신산의 불로초를 캐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던 서복 일행의 흔적을 부정하는 이는 없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내린다. 기록사진을 몇 장 찍고 하산 길에 나섰다. 기원 전 250년대의 인물, 서복의 행적을 만나고 꿈속을 가듯 올라온 길을 되짚어 내려간다. 제주의 서복 설화와 삼성신화와의 관계는 없는 것일까? 한라산 깊숙이 불로초를 찾아 들어갔다가 나오자가 되어버린 세 동자가 삼 신인일 것이라는 이야기, 일본을 건국한 신무천황이 서복일 것이라는 이야기, 어느 날, 제주 시흥리 앞바다 쾌성개로 병랑국 세 공주가 들어온 것은 일본에 근거지를 마련한 서복이 세 동자를 위해 보낸 낭자일 것이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어쩔지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닌 듯싶어진다. 삼 신인의 시대가 단군 시대여서 연대 차이가 심하다고 하지만, 옛날의 연대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궁구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버스는 보리암 주차장에 이르고 있었다.

서복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널리 알려진 전설속의 인물이다. 하지만 이제는 실존의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어 그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의미는 매우 크다. 서복은 이곳 남해 상주 금산과 제주 한라산 등, 여러 곳을 찾아 해매였지만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자, 진시황의 분노가 두려워 귀국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 한다. 그래서 일행의 정착을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러, 가급적 진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망명하는 일이 급선무였을 것이라 하니, 일본이 최종 목적지였을 것이라는 말은 타당성이 있을 듯싶다. 한, 중, 일, 서복학회의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서복의 실체를 보다 명료히 밝히는 일은 삼국의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다음 문화탐방은 서복유적이 많다는 일본 후쿠오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 회원들의 입에서 저절로 모아지고 있었다. ☺



조명철 제주문화원장/수필가

특집 : 실버, 삶을 즐기다

- 고령화 사회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 행복한 실버를 꿈꾸는 유쾌한 하루
- 실버문화축제 2008 전주



고령화 사회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고령화로 인한 대책과 방안 필요

한국은 세계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0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3%로 502만 명에 이르며 2026년에 2배, 2040년에 3배로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기대수명('05년 78.6세)은 연장되는 반면에 저출산 현상은 심화되어, 2050년이면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3%에 이르는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아직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산 활동을 하는 젊은 인구들의 노인부양부담이 커져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는 점이다. '0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됐지만, '30년에는 2.7명당 노인 1명, '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한다.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젊은 세대들은 노인 부양을 위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다 떼고 나서 훌쩍해진 월급 봉투를 받고 당황하게 될 것이고, 미리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미래의 노인들은 갑작스러운 소득부족·건강상실·고독감에 당황하게 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는 2020년 이전에 노후생활안정 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들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던 지난 2006년,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계획인 '새로마지플랜2010'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공적인 노후생활' 기반마련을 목표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건강보장',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보장' 등 세 분야의 86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노인의 4苦(소득, 건강, 고독·소외, 역할 상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후의 소득, 즉 경제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경제적인 노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39.2%에 불과하다. 10명중 6명은 노후에 대해 거의 준비 없이 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제도 뿐 아니라 개인저축과 같은 사적





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이 확보되도록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위해 지난 2007년에 급여율을 인하하였고, 기금운용실적도 개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세대 노인의 빈곤수준 완화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60%의 노인들에게 매월 약 8만4천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직업 변경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의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간의 연계 방안도 마련 중이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제도가 조기정착되도록 기업 대상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연금 이외에도 노인들이 일을 통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체의 평균 정년은 현재 약 57세에 머물고 있어 은퇴 이후 근로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인생이 너무 길다. 정년제도 개선·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와 고용제도

를 고령사회에 맞게 바꾸는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한편, 고령자 능력개발 및 전직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고령인력이 성장잠재력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정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배·가스검침원 등 민간분야의 틈새시장을 찾아 노인적합 직종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고령화 선진국과 같이 젊은 세대와 고령자가 일을 분담하는 "세대를 관통하는 일과 생활의 조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예방·치료·요양서비스로 이어지는 '노인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해나가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인 평균수명은 77.5세이지만 건강수명은 67.8세로 10년의 차이가 난다. 의료 수요가 많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9.2%인 노인들이 진료비 비중은 28.2%를 차지하게 되었다. 건강악화가 초래하는 노후의 삶의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 후에 사후 치료하는 것 보다는 평상시 건강증진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건강수명을 연장할 "포괄적인 노인보건의료체계" (comprehensive health care system) 확립과 질병의 예방, 치료, 요양,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보건소와 건보공단에 의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성 질병을 진단하기 용이하도록 건강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2010년까지는 치매 조기검진을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치매,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노인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과는 별개의 제도로써, 치매와 중풍 등 장기요양보호(long term care)가 필요한 노인을 위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일련의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통해 소위 '9988234' 즉,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앓고 사흘째 되는 날 돌아가는' 그런 삶이 실현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다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이 살아가기 편한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여가·문화생활의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은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이다. 그 핵심은 노인이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걸리는 장애요인을 건축이나 도시 설계단계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무장애(Barrier-free) 개념이다. 문턱을 없애고 미끄럼방지 설비를 갖춘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저상버스 도입,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연장,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 신나는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노후생활설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노인문화 개발 확대,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다룰 것이다. 특히 노후생활설계 프로그램은 현재의 노인들이 노후를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의 노인인 중고령자가 고령사회에 대해 예측해 보고, 젊은 시절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인생을 설계하여야 할지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이라는 데서 의미가 크다.

건강하고 활발한 노인상 정립 시급

‘새로마지플랜’이 담고 있는, ‘성공적인 노후생활’ 조성을 위한 노후소득·건강·생활환경 조성 분야의 정부 정책들이 아직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노인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립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노인들이 행복한 사회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노인을 보는 우리 모두의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돈 없이 늙는 것은 재앙’, ‘한국, 장기적으로는 고령화가 걸림돌’, ‘늙어버린 사회, 희망이 없다’……. 최근, 이러한 암울한 기사들이 지면에 자주 등장하지만 고령사회를 활력과 희망이 없는, 살맛이 나지 않는 침체된 사회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5세」=「노인」=「부양받을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과연 노인은 의존적이기만 한 존재인가? 오히려 이들은 그동안 과소평가되어왔던 사회적 자원은 아닐까? 고령사회로의 변화가 오히려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노인들 스스로도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서의 건강하고 활발한 노인상을 정립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결국 활기찬 고령사회를 만들고 못 만들고는 정부의 체계적인 고령사회 준비와 아울러 지역사회와 민간, 개인 등 모든 주체가 어떻게 힘을 합쳐 고령화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나갈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김현정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사회정책과 사무관

행복한 실버를 꿈꾸는 유쾌한 하루

매일을 새기는 조수연 선생을 만나다

어보와 국새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단지 그것들은 한 나라의 도장이 아니냐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또 몇이나 될까. 이미 기억에서 물러난 옛 시대의 도장에 관심을 가지는 이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 모든 의문을 따라 효자동의 한 장소에 시선을 둔다.



저각작업모습(반야심경)



서각 작업하는 모습

봉니인과의 만남

효자동의 한 서각집. 유리창 안으로 어른 손만한 도장들이 줄지어 있다. 얼핏 보면 그 자체로 무슨 조각품인가 하겠지만 엮어진 저 배에는 여러 글자들이 빼곡하게 쓰여 있을 것이다.

그냥 보기에도 꽤 오랜 시간 공들였을 정성의 작품들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나무 냄새가 가득하다. 마침 큰 책상에 나무판을 올려두고 작업을 하는 조수연 선생이 반갑게 맞이한다. 어느 작업실이 그렇지 않으랴 만든 세심한 작업이 우선하는 직종이니만큼 한껏 집중했던 그에게서 채 식지 않은 열의가 가득하다.

인사말을 주고받기가 무섭게 그가 꺼내온 것은 낙랑시대의 봉니인.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무엇인지 잘 못 알아듣자 휴지 조각에 ‘봉니인’ 이라고 토박토박 써준다.

“낙랑 고분에서 출토한 봉니인을 재현한 작품입니다. 아직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엔 중요 기밀 사항이나 서신을 전할 때 사용한 도장이지요. 목책에 기록된 내용을 봉하여 그 위에 흙을 파 찰흙을 붓고 이 봉니인을 찍어 보내면 훼손의 염려가 없었지요. 나무로 사이를 오무려둔 그 흙을 깨야만 내용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였거든요. 그것을 재현해 낸 것입니다. 봉니인의 사용자는 끈을 달아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자마자 봉니인에 매료되어 단박에 재현을 마음먹었지만 아무래도 연구가 부족해 자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이 봉니인 또한 서적으로서는 그 끈의 형태나 색깔 등의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을 가정한 창작을 넣을 수밖에 없기도 했다고.

어보와 국새

다음 차례로 어보와 국새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는 조수연 선생. 국새는 국가의 공무에 쓰는 관인을 통칭하여 쓰는 것이고 어보는 왕실의 상징적인 도장이라고 한다.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의 도장으로 조선 종실의 비장품이라고 한다. 국새는 현 정권의 왕이 하나만 가지지만 어보는 그 후대에 칭송과 존경의 의미로 여러 개를 만들기도 했다고.

처음에 어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단순히 전각 작업을 하다가 서예 글씨를 각으로 하는 작업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보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중한 문화 예술이 있는데도 단순히 실용적인 것으로만 치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지요. 그러다가 어보를 재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전통문화에 시선을 두게 된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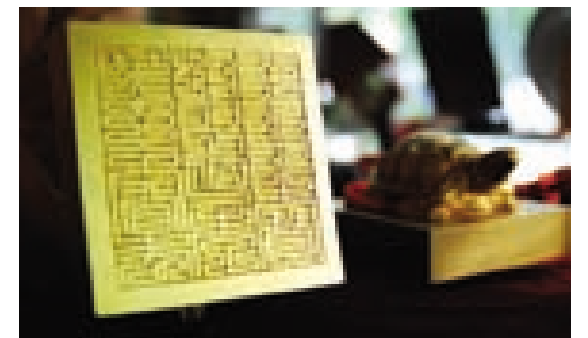
어보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연구가 전무했는데 작년에는 국새를 되살리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요즘 들어 조명을 조금씩 받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수장고 깊은 곳에서 빛 보지 못하는 국새나 어보가 알려지면 좋겠다고. 지금은 자료도 많이 모자라고 연구 자체가 잘 되지 않아 재현 작업에 늘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흔히들 창작의 고통에 관해 이야기 하지만 저는 옛날 그대로를 재현해 내는 일이 참 어렵다고 느껴져요. 어느 하나 다르지 않게 세심하게 작업해야 하니까요. 작품을 만들다 보면 객관적인 생각이 개입이 되기 마련인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배제해야만 하는 게 재현 작업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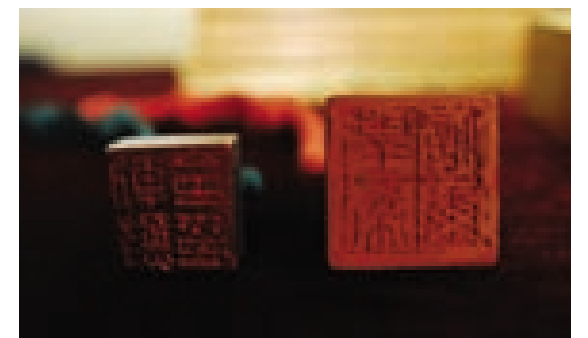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혹여 개입되더라도 할까 봐 늘 경계한다는 그다. 실제로 어떤 것들은 글로만



세종어보 복각 재현



세종어보 인면



봉니인 면



봉니인을 찍은 모습

설명되어 있기도 해서 직접 그 말을 따라 해 보며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고. 물론 그 작업이 쉬울 리 없다. 몇 번을 실험해보고 연습하고 작업한 후에야 겨우 결과물을 얻는단다. 아마 이렇게 알아내고 또 알아내는 것이 평생의 즐거운 숙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어보를 만들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냥 사무용으로 쓰는, 흔히들 말하는 막도장도 그 나름의 ‘미’가 숨겨져 있다고. 작은 나무 조각에 그 동그란 곳에 저마다의 글자를 새겨 빨간 인주를 묻혀 찍어낼 때의 그 순간예요. 그런데 요즘 흔하게들 쓰이는 컴퓨터 도장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그 정교한 작업은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이 사소한 작업에 얼마나 많은 숨이 들어가는 지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무에게 말 걸기, 그 소통의 하루하루

작업을 하는 동안에 나무에게 말도 걸고 칼을 쥐어 채취도 전하면서 늘 대화한다는 조 선생.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관심이 시급한 때라며 숨어 있는 여러 서각 작품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는 그다. 고령화 세대가 되면서 오히려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한다.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도 아직 청춘 같다고. 왜냐하면 자신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한 82년과 같은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란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은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일만 보고 작업할 수 있다는 그. 이 다음엔 그의 손으로 무슨 내용을 새길까. 그의 손에 눈길이 머문다. ☼



전승공예대전에서 수상한 작품인 태조어보를 바라보는 조수연 선생



이번 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문경문화원의 고개너머 새 세상 문경새재 아리랑

‘실버문화축제 2008 전주’ 축제대문 열렸네!

– 문경문화원 ‘문경새재아리랑’ 대상 수상

누가 이들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랴. 열정으로 가득한 그들의 심장박동 소리가 2박 3일간 전주를 채웠다. 이미 지난 시간들이 아닌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쿵쾅거림을 더듬어본다.

어르신들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실버문화축제는 전주에 그 터를 마련했다.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실버문화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되었다. 실버문화학교는 2005년 시작되어, 2008년 현재 전국 100개 문화원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복권기금 예술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전통은 미래다! 실버는 축제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도시인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전국 지방문화원의 4천여 명의 실버문화족이 준비하고 참여했다. 이미 지나간 것으로의 전통이 아닌, 현실에서 만지고 느끼는 전통을 누리는 실버의 모습이 2박 3일 내내 전주를 가득 채웠다.



사천문화원의 강강수월래

최선에 최선을, 열정의 사람들

개막식의 축하공연을 맡은 남해문화원의 다문화팀은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화장을 하느라 분주하다. 고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그녀들을 보니, 오히려 부채춤 한번 제대로 추어보지 않은 우리보다 더 한국인 같다. 우리 문화를 즐길 줄 알고 내세울 줄 아는 이들도. 쏟아지는 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동안 쏟아왔던 노력의 시간에 질 바가 아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박수를 받았다. 개막식의 비구름은 이내 물러갔고 하늘도 평온하리만치 맑았다. 뒤이은 저녁공연은 그야말로 흥겨움의 연속이었다.

이번 축제에서 대상을 받은 문경문화원의 공연은 70여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많은 관람자의 흥미를 끌었다. 아리랑을 따라서 흥얼거리느라 흥에 겨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꼬맹이들은 무대 앞으로 달려 나가 생전 처음 보는 물레를 만져보고 싶어 폴짝거리기도 했다. 중간 중간 무대의 퍼포먼스로 관중석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전주 한옥마을에 울려 퍼지는 다듬이질 소리에 축제의 밤은 아스라이 저물었다. 뒤이어 대구팔공문화원의 '행복한 동행 아코디언 하모니' 공연으로 좌중이 모두 한 목소리로 팔도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밤이 깊었다.



가평문화원 새싹 실버한국무용



정선문화원의 신양반전

어디서 왔능고, 어데 문화원이오?

똥니똥니해도 이번 축제의 백미는 길놀이였다. 경기전에서 모인 축제 참가자 모두는 줄지어 한옥마을 일대를 걸어 경기전 앞 주차장 실버무대로 모여 들었다. 그 모양과 옷가지들이 이색적이어서 문 연 상가에서는 문 앞에 나와 그 모양을 보느라 장사는 뒷전이기도 했다. 흥겹게 울리는 팽과리, 북, 장구 소리. 색색의 한복. 감투를 쓴 할아버지. 소고로 발걸음을 맞추는 어르신들까지 한옥마을의 길을 무지개빛으로 물들였다. 실버무대로 옮겨 각 문화원마다 뽐내기 시간을 잠시 갖고 동대문 문화원의 실버팀이 무대를 열었다.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가요를 그 춤과 노래 모두 완벽히 소화해내 큰 박수를 받았다. 노래가 나오는 동안 가지각색의 춤으로, 때로 유려하게 탕고를 추는 어르신들도 있고, 두 팔을 올려 막춤을 추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이 축제의 마당에서 어디 문화원, 어디 지역이 아닌 함께 '놀이 즐기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비롯, 16개 시도지회와 전국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정보를 엿볼 수 있는 '내 고장 홍보마당'이 열려 서로 정보공유의 장이 되기도 했다.



부안문화원의 할머니 반진고리 부스 광경



동대문실버중창단 - 원연니클럽

열정이 녹여낸 실버문화축제 2008

여전히 화창한 하늘을 한 셋째 날 실버무대에서는 이색공연이 펼쳐졌다. 태안문화원의 '수리수리 마수리 실버해리포터'가 바로 주인공이었다. 막 마법학교에서라도 출동한 듯한 복장으로 신기한 마술을 보여줬다. 관객의 환호성을 제일 많이 받은 것은 신문지 안에 물을 쏟아 넣었다가 물을 감쪽같이 없애 보이는 것이었는데 모두 놀라 탄성이 절로 나왔다. 마술 자체로도 신기하지만 특히 태안문화원 어르신들이 보여주는 무대매너에 관중석에서 박수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교동아트센터 2층 실버문화화당에서는 화순문화원의 '화순고인돌 및 역사환경지킴이' 고양문화원의 '문화지킴이 공감 1,3세대' 등 다채로운 강연이 열리기도 했다.

상설전시로 2박 3일 내내 경기전 일대에서 많은 문화원이 전주시민들의 발길을 끌기도 했다. 평택문화원의 '노풍당당 장승제작', 강화문화원의 '생활 속의 강화도 자연염색' 등은 체험거리를 찾는 사람들로 인해 북적였다.



대구팔공문화원의 아코디언 선율을 타고 조선팔도유람하기



온양문화원, 짚풀공예와 함께 하는 실버공예

지방문화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일 선배들은 올해로 3회째 자랑무대를 갖는 셈이다. 그런 까닭인지 이번 축제는 어르신들의 원숙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갑자기 비가 와도, 관중이 조금 덜 찾아도, 즐기고 웃으며 참여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구태의연하지만 흔한 가요의 제목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어르신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

문의 02) 704-4322 홈페이지 www.silverang.org



공연을 관람 중인 사람들

제작체험형(부스+명장거리)		공연형	
문화원명 대전서구문화원 대전동구문화원 울산남구문화원 원주문화원 양평문화원 진천문화원 포천문화원 서귀포문화원 송파문화원 대덕문화원 구리문화원 부여문화원 청주문화원 대전유성문화원 과천문화원 논산문화원 강진문화원 경주문화원 영천문화원 익산문화원 증평문화원 양양문화원 온양문화원 함평문화원 마산문화원 나주문화원 마포문화원 청원문화원 부산진문화원 해남문화원 인천강화문화원 부산금정문화원 의령문화원 통영문화원 진도문화원 부안문화원 평택문화원 울주문화원	프로그램명 할머니, 할아버지 '신비한 꽃누르미' 전통문화알림이 '한스타일' 체험 청소년과 함께하는 목공예희망제작소 실버세대가 만드는 전통떡이야기 향기로운 삶을 위한 배아미쌀 비누공방 검은도화지에무지개를(전통문양그리기) 어린이 한자교실 강사 양성 집풀공예제작 실버세상으로 송파 실버 벽화 봉사단 장승고을 어르신 액맥이 주걱을만들다 전래놀이 지도사 '검정과무신' 전통민속놀이 지도사 양성 전통 장문화 알리미 양성교육 달려라실버포장마차(떡만들기) 은빛사랑매들 백제의 후에! 실버도예가 양성 차나무 재배에서 수제차 생산 하나,둘,셋 추억만들기(사진촬영) 달려가는 실버문화교실(풍선공예) 손끝으로 만드는 작은 세상(종이접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야생초이야기 고향찾은 은빛언어 집풀문화와 함께하는 실버공예 영상으로 쓰는 내 고향이야기 마산문화지킴이 실버영상제작단 이야기와함께 토우와 함께 실버V미디어 영상학교 명품세상! 청원갯바치 꿈을 빛는 도자기 세상 땅끝 해남 한지로 물들다 생활속의 강화도 자연염색 정겨운 한지인형 연구회 큰줄 모형제작 칠과 자개와 함께하는 통영실버 옥주골 공예교실 할머니 반질고리(퀼트소품) 노풍당당 장승세상 전통(액자,표구) 공예교실	문화원명 김제문화원 사천문화원 고령문화원 가평문화원 김해문화원 달성문화원 울진문화원 목포문화원 문경문화원 북구낙동문화원 안양문화원 인천남동문화원 진해문화원 담양문화원 영등포문화원 동대문문화원 아우내문화원 의왕문화원 영광문화원 양구문화원 광주서구문화원 부산강서문화원 황성문화원 영덕문화원 속초문화원 공주문화원 춘천문화원 정선문화원 경산문화원 대구팔공문화원 평창문화원 태안문화원 의정부문화원 정읍문화원 화성문화원 양주문화원 신안문화원 전주문화원 군포문화원 수성문화원 안산문화원 동해문화원 안동문화원 봉화문화원	프로그램명 미술과 함께 신나는 인생만들기 강강수월래 대가야 실버 가얏고(가야금)연주단 태극무, 궁중무, 무녀도 황새장군과 여의남자' 민요, 노래 수업 12명 바지개꾼 놀이 '길에서 길을 묻다' 남도소리전승 및 실버남도소리공연단 양성 고개넘어 새 세상' - 문경새재아리랑 낙동강 노래를 부르는 어르신들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릴레이 음악회 신명나는 우리가락 실버농악대 창작 뮤지컬 '소중한 나의 몸2' 우도농악 전승 및 청죽골 실버 풍물단 부채춤과 함께하는 인형극 동대문 실버 중창단 바람이 전해주는 이야기(silvers back green) 행복을 전해요~! 의왕 실버 매직단 영광 굴비굴 놀보네 박터졌네~ 실버 인형극단 양성 남도 민요와 단가 울어라 색소폰아 어하~ 좋다 "장수춤" 한마당 동해 어부들의 소리 재연 마당극초향전 논두렁 발두렁 소양간 대동천렵놀이 전승 정선아리랑 실버놀이단(신 양반전) 삼성현 실버 시조창 및 창극단 양성 청춘을 돌려다오(행복한 동행, 아코디언 하모니) 한치 뒀산 곤드레 딱죽이 수리수리마수리 실버헤리포터단 끝 없는 음악여행(silver of rock 시즌 3) 은빛중환연예단 양성 흥도야 우지마라 찾아가는 양주의 옛 소리 섬드리민요합창단 얼썩~ 복장단에 은빛소리 더당살~ 군포설화 마당극 '감투봉 명당싸움' 고모령 효 악극단 양성 아코디언으로 수놓은 은빛 추억 실버와 망상동괴관고청제농악이 만났을 때! '안동 그 오래된 이야기' 구전담화 이야기꾼 양성 웃음쟁! 행복쟁! 오카리나 부는 세상
강연형			
문화원명 기장문화원 예천문화원 진주문화원 고양문화원 이천문화원 고창문화원 화순문화원 광주북구문화원 영암문화원 합천문화원 영주문화원 대천문화원 서울중구문화원 대전중구문화원 여수문화원 청도문화원 창원문화원 양산문화원	프로그램명 기장문화해설사 양성교실 전설로 풀어가는 예천이야기 진주 이야기 강사 및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문화지킴이 - 공감 1·2·3세대 - 이천 구경과 명장 도자기 감상 향토문화실버포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 과거로 떠나는 가시문화 여행 도선국사 풍수지리 사상 해설사 양성 우리 문화와 한문지도사 양성교육 영주 실버 홍보 사절단... 그 두번째 이야기 풍수지리, 수맥조사지도자반 양성 서울 중구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실 대전 근대건축 실버해설사 양성과정 여수EXPO성공확신아카데미실버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청도문화유적 길라잡이 양성 늘푸른향토 해설사 양성 양산실버반키(VANKY) 해설사 양성		

한국의 제의례(祭儀禮)

우리 전통문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의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제의례'를 3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 - 편집자주

1. 제의례의 의미

사람은 자기가 입은 신세를 갚는다. 자기가 입은 신세 중 가장 큰 신세는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조상의 신세이다. 그것을 보본반시(報本反始), 즉 근본에 보답하고 자기도 자손을 낳는 것이며 그것을 효도(孝道)라 한다.

효도는 조상이 살아계신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효도는 종신지행(終身之行)이라고 한다. 돌아가신 조상에게 효도를 계속하는 것이 제의례이다.

이에 반해서 종교는 가르침이다. 내가 없으면 부귀공명이나 천당극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인이 나 제왕 또는 현철(賢哲)들이 위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가르침이 어찌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은혜에 비기겠는가. 그 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나를 있게 하신 조상의 위대함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해 종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조상을 섬기는 효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2. 제의의 종류

옛날에는 가정의 제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 현대에도 지내는 제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제(時祭): 춘하추동 매 계절의 가운데 달에 날을 골라 사당에 모신 모든 조상에게 지낸다. 모든 제의절차의 기준이 되는데 현대는 사당이 없으므로 지내는 집이 드물다.

● 음력 10월에 묘지에서 지내는 제사는 시제·시향(時祭 時享)이 아니고 세일사라 해야 한다.

(2) 명절차례(名節茶禮)·속절즉 현이시식(俗節則 獻以時食): 명절에 기제사를 지내는 모든 조상에게 그 명절의 명절 음식을 차려서 올리는 차례를 지낸다. 현대는 설날, 한식(寒食), 한가위에만 지낸다.

(3) 기일제(忌日祭): 고조까지의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그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제의이다.

(4) 세일사(歲一祀): 기일제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직계 조상에 대해 일년에 한번만 지내는 제의인데 세일사를 지내는 날은 음력 10월 중에 날을 골라서 지낸다. 세일사를 지내는 장소는 그 조상의 묘지에

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고, 묘지가 없을 때는 특별히 설치한 제단(祭壇)에서 지낸다.

(5) 산신제(山神祭): 조상의 산소를 모신 산의 신에게 지내는 제의인데 산신제를 지내는 날은 1년에 한번 조상의 묘지에 제의를 지낼 때 지낸다.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조상 묘지의 동북(東北)쪽에 제단을 모으고 지내는데 같은 장소에 여러분 조상의 묘지가 있더라도 산신제는 한 곳에서 한 번만 지낸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제의 중에서 지면관계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일제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기일제는 고조까지의 조상이 돌아가신 날(양력)에 그 배우자와 함께 지낸다.

3. 제의기구(祭儀器具)

가. 표준기구

제의에 소용되는 표준적인 기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예시되는 것은 상한선이므로 각기 형편대로 준비하면 될 것이고 제의 기구는 제의 이외의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위패함(位牌函·櫝): 조상의 위패를 모시거나 붙이는 장치이다.

(2) 교의(交椅): 위패함을 모시는 의자이다. 상 위에 신위를 모시면 안 된다. 상 위에 신위를 그대로 모시면 밥상 위에 조상을 앉히는 것이 되어 죄송스럽다. 일반 의자라도 제상 뒤에 놓고 방석이나 흰 종이를 깨끗하게 깔고 그 위에 신위를 모시는 것이 좋다.

(3) 제상(祭牀): 제의 음식을 차리는 상이다. 크기는 넓이가 150cm×90cm는 되어야 제수 진설에 지장이 없다.

(4) 향안(香案·床):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는 상이다. 크기는 20cm×40cm정도가 좋다.

(5) 주가(酒架): 술병, 주전자, 퇴주기를 올려놓는 상이다. 크기는 20cm×40cm정도가 좋다.

(6) 소탁(小卓): 강신(降神)용 뇌주(酌酒) 잔반을 올려놓고 위패를 교의에 모시기 전에 대기시키는 상이다. 주가와 같은 크기면 좋다.

(7) 대상(大牀): 제상에 올리기 전의 제의음식을 대기시키는 상이다. 제상의 2/3정도의 크기면 좋다.

(8) 축판(祝板): 축문을 붙이거나 올려놓고 읽는 판자이다. 크기는 20cm×30cm 정도면 좋다. 문방구점에 서 파일을 구해서 사용해도 좋다.

(9) 촛대(燭臺): 초를 꽂아 불을 붙이기 때문에 나무 제품은 화재의 염려가 있다. (2개)

(10)향로(香爐): 향을 태우는 불 그릇이다. 불을 담는다. 나무 제품은 위험하다.

(11) 향합(香盒): 향을 담아 놓는 그릇이다.

(12) 모사기(茅沙器): 빈 그릇에 모래를 담고 띠풀[茅] 한 줌을 묶어 세워 땅바닥을 상징한다. 묘지에서 지낼 때는 필요 없다.

(13) 그릇(祭器): 제의음식을 담아 끄는 그릇이다. 요사이 목제 제기를 보면 떡을 끄는 편들이 1개이고, 적을 담아 끄는 적들이 하나인데 잘못이다. 떡은 2그릇이고 적은 3그릇이다.

4. 제의음식[祭羞, 조리된 음식은 祭需가 아니다]

제의음식은 땅에 뿌리를 박지 않은 고기, 생선, 새와 같은 천·양산(天·陽產)이 있고, 땅에 뿌리를 박은 곡식, 채소, 과일과 같은 지·음산(地·陰產)이 있다. 신위수 대로 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한 줄에 올리는 음식이 양산일 때는 양수(陽數)인 홀수 접시로 하여 남자가 제상에 올리고, 음산일 때는 음수(陰數)인 짝수 접시로 하여 여자가 제상에 올린다.

(1) 초접(醋): 식초를 종지에 담는다. (1종지) 옛날의 건강식인 듯하다.

(2) 반·메(飯·밥): 밥이다. 식기에 수북하게 괴(담고)고 덮개를 덮는다.(신위수 대로)

(3) 갹·메탕(羹·국): 국이다. 소고기와 무를 네모로 납작하게 썰어 끓여 담고 덮개를 덮는다.(신위수 대로)

(4) 숙수(熟水): 송농이다. 냉수나 더운 물에 밥알을 조금 풀어 담는다.(신위수 대로)

(5) 면(麵·국수): 국수를 삶아 건더기만 그릇에 담고 덮개를 덮는다.(신위수 대로)

(6) 편(餅·떡): 현란한 색깔을 피한다. 정4각형의 접시에 괴고, 위에는 참쌀 가루로 갖가지 모양을 빚어 기름에 부치거나 꿀이나 조청을 바른 옷기를 엮는다.(신위수 대로, 부득이하면 한 제상에 1접시. 떡이 한 접시이면 국수도 한 그릇이다.)

(7) 편청(餅淸): 꿀이나 조청 또는 설탕을 작은 접시에 담는다.(떡접시 수 대로)

(8) 탕(湯): 찌개이다. 고레에 보면 울곡(粟谷)선생의 제의초(祭儀抄)에만 탕이 보이고 다른 예서에는 탕이 없다. 제수 진설(陳設)에 혼란이 생기는 이유가 된다.

탕은 홀수 그릇 수를 쓰는데 대개 3탕을 쓰고 여유가 있으면 5탕을 쓰기도 한다. 모든 탕은 재료를 끓여서 건더기만 그릇에 담고 덮개를 덮는다.(3~5가지)

• 육탕(肉湯): 소고기를 재료로 한다.

• 어탕(魚湯): 생선을 재료로 한다.

• 계탕(鷄湯): 닭을 재료로 한다. 계탕 대신 소탕(蔬湯)이라 해서 채소나 두부를 재료로 하기도 한다.

위 3가지가 기본이고 5탕을 할 때는 적당한 재료를 써서 2가지를 추가한다.

(9) 전(煎): 부침개이다. 더러는 간납(肝納)이라고도 한다. 적(炙)과 함께 홀수 접시를 쓰는데 대개 육전과 어전 2가지를 쓰며 여유가 있으면, 육회와 어회를 보태 4가지를 쓰기도 한다.

• 육전(肉煎): 고기를 다져서 두부와 섞어 동그랗게 만들고 계란 노른자를 묻혀서 기름에 부친다.(1접시)

• 어전(魚煎): 생선을 납작하게 저며서 노란 자를 묻혀서 기름에 부친다.(1접시)

• 육회(肉膾): 소의 살코기 장(腸), 간(肝) 등을 썰어서 접시에 담는다.(1접시)

• 어회(魚膾): 생선 살만 저미거나 썰어서 접시에 담는다.(1접시)

(10) 초장(醋醬): 간장에 식초를 타서 종지에 담는다.(1종지)

(11) 겨자(芥子): 어회를 쓸 때는 겨자 가루를 물에 개어 작은 접시에 담는다.(1접시)

(12) 적(炙): 구이이다. 제의 음식 중에서 중심이 되는 특별식으로서 3가지를 마련해 원칙적으로 술을 올릴 때마다 바꾸어 올린다. 직4각형의 접시에 담는다.(3접시)

• 육적(肉炙): 소고기구이이다. 소고기의 살코기를 대꼬치에 꿰어 굽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소고기를 손바닥 너비로 30cm 정도의 길이로 토막내어 칼집을 내고 소금이나 간장만으로 양념해 익힌 것 2~3개를 직4각형의 접시에 담는다.(1접시)

• 어적(魚炙): 생선구이이다. 생선 2~3마리를 입과 꼬리 끝을 잘라 내고 칼집을 내어 소금 간장으로 양념해 익혀서 직4각형의 접시에 담는데 머리가 동쪽으로 가고 배가 신위 쪽으로 가게 담는다.(1접시)

• 계적(鷄炙): 닭구이이다. 털을 뜯고 머리와 두 발을 잘라 낸 다음 익혀서 직4각형의 접시에 담는다.(1접시)

※ 원래는 적간(炙肝) 9꼬치를 만들어 3꼬치씩 3접시에 담았다.

(13) 적염(炙鹽): 적을 찍어 먹는 소금을 작은 접시에 담는다.(1접시)

(14) 포(脯): 생선말린 어포나 고기말린 육포를 직4각형의 접시에 담는다. 생선말린 어포를 쓸 때는 등이 위로 되게 담는다. 문어 다리를 올려서 장식하기도 한다.(1접시)

(15) 해(醢): 생선젓이다. 생선젓이면 무엇이든 좋은데 대개 소금에 절인 조기젓 2~3마리를 직4각형의 접시에 어적을 담듯이 담는다. 차례 때는 쓰지 않는다.(1접시)

(16) 해(醢): 식해 건더기를 둥근 접시에 담는다. 기일제사에는 안 쓰고 차례에 쓴다.(1접시)

(17) 숙채(熟菜): 익힌 나물이다. 대개 고사리, 도라지, 배추나물 등 3가지를 곁들여 둥근 접시에 담는다.(1접시, 3접시가 아니다.)

(18) 김치(沈菜): 물김치이다. 주로 무로 담근 나박김치를 그릇에 담는다.(1그릇)

(19) 청장(淸醬): 간장이다. 간장을 종지에 담는다.(1종지)

(20) 과실(果實): 나무에 달린 생과(生果)와 곡식으로 만든 과자(菓子)이다. 종류마다 다른 둥근 접시에 담는데 1접시에 담는 개수는 적당히 하되 전체의 접시 수는 짝수[陰數]이다.

(21) 제주(祭酒): 술이다. 가급적이면 맑은 술(淸·藥酒)을 병이나 주전자에 담는다.(1병)

(22) 현주(玄酒): 정화수(井華水)이다. 제일 먼저 받은 맑은 물을 병에 담는다. 술이 생기기 전에는 정화수로 제사를 지냈었기 때문에 비록 술을 쓰더라도 준비하는 것이다.(1병)

5. 제수진설(祭羞陳設)

(1) 합설과 각설: 고례에는 고비(남자조상과 여자조상)각설(各設)이었으나, 현대는 모두 고비합설(合設)이다. 그러려면 무엇을 따로 차리고 어떤 것을 함께 담을 것인가를 정한다.

• 각설(各設): 산 사람도 따로 담아서 먹는 메(밥) · 갯(국) · 술 · 국수(따라서 떡) 송늬는 따로 담아야 할 것이다.

• 합설(合設): 반찬과 과실은 한 접시에 담고, 수저도 시저거중(匙箸居中)의 원칙을 지켜 한 시접에 신위 수 대로 시저를 담아 신위 앞의 중앙에 놓는다.

(2) 두미의 방향(頭尾方向): 제수 중에서 머리와 꼬리가 있는 것을 놓는 방법은 생선이 주된 것인바 생선은 바다에서 나는데 우리나라의 지형이 동쪽에 큰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생선이 나기 때문에 머리가 동쪽을 향하고 꼬리는 서쪽을 향하는 동두서미(東頭西尾)로 한다.

(3) 배복의 방향(背腹方向): 계적 · 어적 · 조기젓 · 생선포와 같은 등과 배가 있는 제수는 등이 바깥(위)쪽 배가 안(아래)쪽이 되게 담는 것이 순리(順理)일 것이다. 바르게 놓는 것(계적 · 생선포)은 등이 위로, 뉘어 놓는 것(어적 · 조기젓)은 배가 신위 쪽으로 가게 담는다.

(4) 과실의 위치(果實位置): 고례에는 어떤 예서에도 과실별 위치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계절과 지방에 따라 과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는 그렇지 않으므로 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 홍동백서(紅東白西): 붉은 색의 과실은 동쪽에 놓고, 흰색의 과실은 서쪽에 놓는다. 이 말은 다음 사항과 연계해서 설명한다.

• 동조서율(東棗西栗): 대추는 동쪽이고 밤은 서쪽에 놓는다. 이것은 예서에 근거가 있다. 즉 혼인례에서 신부가 시아버지에게 드리는 폐백이 대추와 밤인데 대추는 동쪽을 의미하고 밤(栗)은 서(西)쪽 나무(木)라 쓰므로 서쪽을 의미한다고 했다.(현구고례 참조)

밤은 까서 쓰니까 흰 색이고 대추는 붉은 색인데 진설은 현란한 색깔을 피하므로 밤이 있는 서쪽에 흰색의 과실을 차리고 대추가 있는 동쪽에 붉은 것을 놓는 것이 홍동백서이다.

○더러는 조율시리(棗栗柿梨)라면서 대추는 씨가 하나니까 임금이고, 밤은 한 송이에 3톨이 들었으니까 3정승이고, 감은 씨가 6개니까 6판서이고, 배는 씨가 많으니까 기타 벼슬이므로 벼슬 높낮이에 의해서 차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도 동쪽부터 조율시리인지 서쪽부터 조율시리인지도 설명이 없다. 그렇다면 임금을 상징하는 대추는 신하나 백성의 제사에는 쓸 수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서에 전혀 근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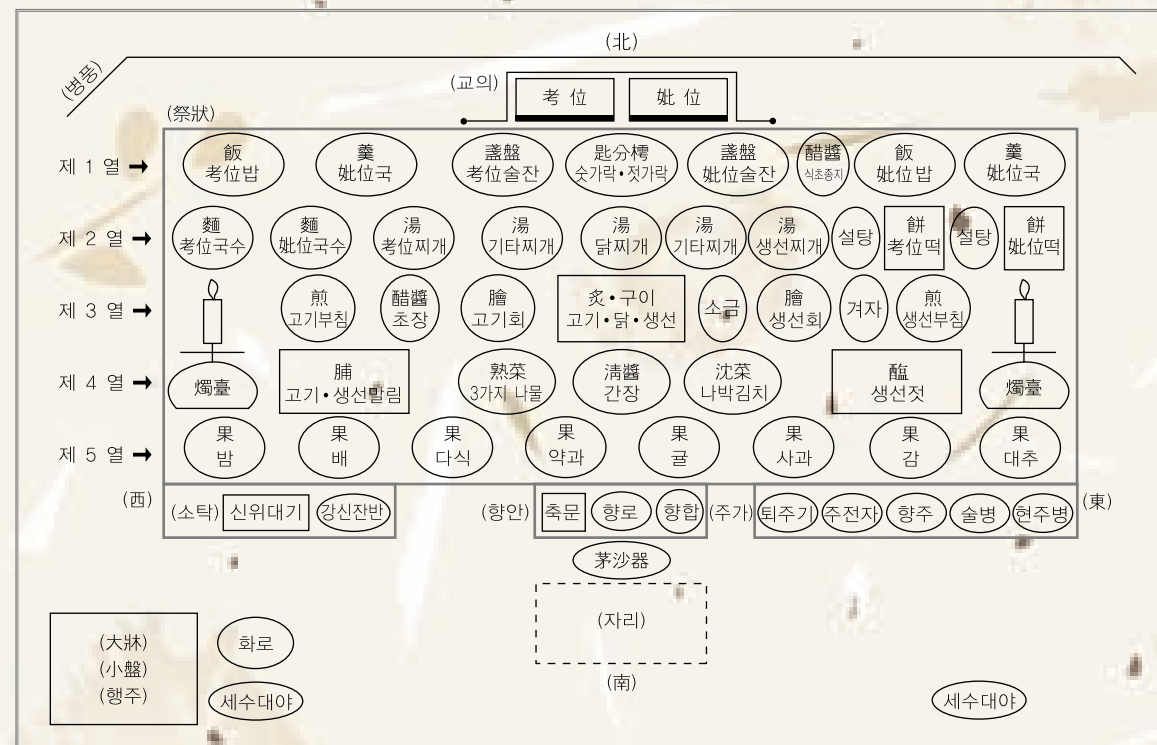
○생각해 보면 동조서율이나 조율시리는 표현 방법이 다를 뿐 진설 위치는 같은 것이다. 동조서율은 과실을 차리는 위치를 말한 것이고, 조율시리는 과실을 제상에 올리는 순서를 글씨 쓰는 순서를 따라 동쪽을

먼저 말하고 서쪽을 다음에 말한 것이다. 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대추가 있는 오른쪽인 동쪽을 먼저 말하고 밤이 있는 서쪽을 다음에 말하고 이어서 홍동백서에 의해 대추 옆의 감을 말하고 끝으로 밤 옆의 배를 말하니가 조율시리가 되는 것이다. 과실의 위치는 동조서울이나 조율시리가 같은 위치인 것이다.

(5) 탕과 전의 열(湯煎列): 일반적으로 전과 적을 제2열의 국수와 떡 사이에 놓고 탕만을 제3열에 차리는데 실제로 진설을 해보면 상이 좁아서 국수와 떡 사이에 육전·초장·적·소금·어전을 놓을 수 없고, 제3열은 탕만을 진설하면 빈 자리가 많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상차림의 격식이 그릇이 낮고 작으며 국물이 있는 것은 먹는 이에게 가깝게, 그렇지 않은 음식은 멀리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탕을 제2열의 국수와 떡 사이에 차리고 육전 초장 적 소금 어전은 제3열에 차린다. 특히 떡과 국수를 신위수 대로 하며 육전·어전 외에 육회와 어회를 더 차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진설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위 각항을 참작하여 표준 진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장

충청도 아리랑의 가락과 함께

- 회화작품으로 보는 아리랑

‘아라리야하 아라리 요으

아리랑 얼싸 아라성아

아라리야 아라리 요오

아리랑 얼싸 아라성아 ‘

‘높은 뜰에 는 밭을 뜨고

깊은 들에 논을 쳐서

아라리야 아라요오

아리랑 얼싸 아라성아'

오곡 잡곡에 농사를 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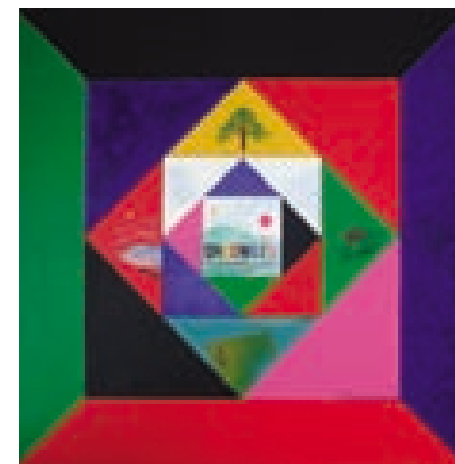
해마다 연년이 풍년만 들어라

아라리야 아라리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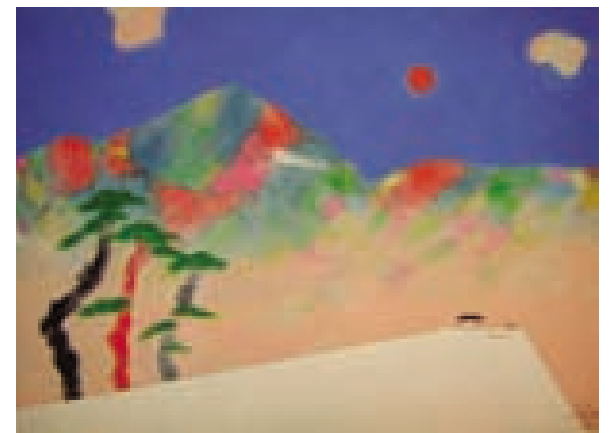
아리랑 얼싸 아라성아'

아라성은 충청북부지역에서 모를 심으며 불렀던 노래다. 앞소리를 매긴 지남기 씨는 본래 충북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에서 태어나 열다섯 살 때 증원군 주덕면 신양리로 옮겨 살다가 마흔 살 되기 전에 이곳 증원군 신니면 마수리에 자리를 잡았다. 1972년에 이곳 농요를 중심으로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나가기도 했다.(한 반도아리랑. 신나라. p97)

충청지방은 기후가 온화하고 물이 좋아 농산물 상품이 좋다. 국내유일의 바다 없는 道가 충북이다. 청주의 가로수 길은 시원한 청주를 상징한다. 더닐처럼 서있는 1,527그루의 나무는 건강미를 자랑한다. 무심천, 직지(1377년. 7월 청주흥덕사 간행) 상당산성 우암산 육거리 시장 등은 맑은 청주를 보여준다. 더불어 청주아리랑을 본다. 유행가조 같은 말에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준다. 서민들이 불렀던 노래다.



청주아리랑 2007



서산아리랑 1995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신통방통 오방통 날나리
 황금통 구리통 황부자집 절구통
 인천의 포목통 서울은 종로통
 건방진 늙은 대갈통
 일본놈은 밥통인데 조선양반은 필통
 아주머니는 메주통 이요 큰 애기는
 젓통인데 큰 젓통가진 아주머니가 좋더라.

충남 서산은 지난 기름피해를 당했었지만, 국민들 자원봉사 힘도 컸었고, 현지민의 고생과 피땀으로 이겨낸 고장이다. 앞으로는 대산항의 역할이 증대되어 한국을 먹여 살리는 경제가 됐으면 한다. 중국무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산항은 각종산업 시설은 물론, 문화적 시설도 동시에 발전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춘 곳이다. 수심이 깊고 접안 조건이 괜찮다는 보고서가 많다. 또 해미읍성의 관아 체험이나 옥사체험, 군영체험, 장터체험, 민속놀이 체험 등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한편 서산의 운산면 원별리 벚꽃길은 가 볼만한 명소다. 서산의

우수한 한우 육성을 위한 한우관광단지도 괜찮고, 서산문화원에서는 ‘청소년 문학제’를 시상 장려하는 행사도 좋은 모델이 된다. 바다를 끼고 있는 서산은 우럭축제 육쪽 마늘 천수만 철새, 굴 조개 등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예부터 서산 어리굴젓은 너무도 유명하다. 명성만큼이나 품질을 지키는 일도 꽤 어려울 것이다.

공주도 국보급 문화제가 많은 지역이다. 송산리 고분군이나 동학사 계룡산도 유명하다. 공주 공산성은 토성이었으나 1432년 이전에 석성으로 개축된 듯. 도시전체의 녹색균형을 보여주는 공산성의 가치도 아름답다.

물 맑은 충주는 국토의 한가운데다. 충주 제천 단양을 중심한 충주호가 있다. 충주 탄금대는 남한강과 達川이 만나는 삼국시대부터 중요한 위치였다. 강변 송림 절벽은 경치도 좋다. 안내판 글에 의하면, 1400년 전 신라 진흥왕 때 가락국 제일의 우륵이 풍광 좋은 곳을 찾아 제자 범지, 계고, 만덕에게 가무음곡을 가르쳤다. 가야금 타던 소리에 사람들이 감탄하고 모여들었던 곳이라 ‘탄금대’라 불린다고 했다.

문장가任강수 명필 김생 신립장군 임경업 장군 등 유난히 많은 역사 유적지로서 선사유적박물관, 술 박물관도 있다. 소백산맥의 줄기로 휴양림이 있고 공기가 맑아 사과 맛도 유명하다. 10월의 사과축제와 우륵문화제, 한국의 전통인 택견 시범 및 행사 등은 많은 관광객을 부른다. 한반도 지형의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중심지역이다. 과거에는 이곳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기도 한 中原 小京이 설치됐던 역사 깊은 고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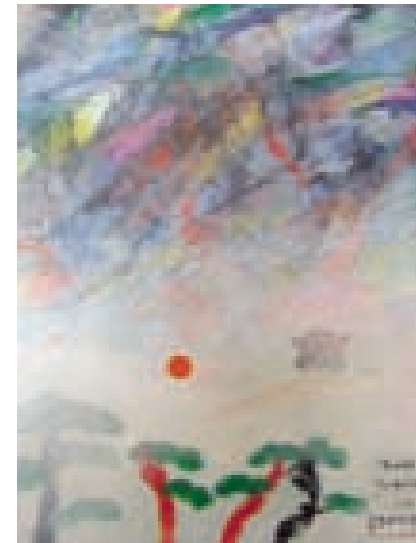
단양도 충주와 더불어 중부지역의 문화를 이룬 아름다운 고장이다. 전통적으로 단양8경이란 뛰어난 명



서산아리랑 2008



공주아리랑 2006



충주아리랑 1988



충주아리랑 2007

소가 제각기 얼굴을 내민다. 자연의 맛을 간직한 단양은 도담삼봉을 비롯해 옥순봉등 경치 좋은 관광지가 많다. 관광지엔 또 먹을 음식이 발달되게 마련이다. 단양에는 맛있는 대표음식 열 가지가 있다. 1 곤드레 마늘 솔밥. 2 남한강 민물매운탕. 3 송이·능이버섯 전골. 4 황기 마늘 갈비탕. 5 올갱이 해장국. 6 도토리 묵밥. 7 단양 향아리 맥적구이. 8 소백산 산채비빔밥. 9 쟁반 도토리 비빔국수. 10 소백산 더덕 마늘구이 등이다. 우리의 입맛을 돋아주는 맛깔스런 음식들이다.

천안시는 유관순열사를 빼놓을 수 없다. 유관순은 1902.12.16 병천면 용두리에서 출생, 선교사 샤프의 추천으로 이화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웠다. 1919.4.1 아우내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한 죄로 부모님과 친척 포함 일가족 19명이 순국했다. 유관순도 1920.9.28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셨다. DJ정권시절엔 ‘열사’란 호칭을 여기저기 흔하게 썼다. 열사란 호칭을 함부로 많이 쓴 것은 옳은 게 아니다. 유관순열사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

보령과 서천은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여름철엔 그곳을 찾는 인파가 많은 곳이다. 금산도 인삼축제가 열리는 대단한 인삼고장이다. 제천과 조치원은 대학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교육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옥천 논산 보은 음성 부여 영동은 영농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의 다방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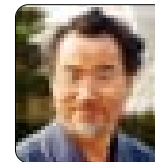
이밖에 당진은 대산항과 평택항으로 인해 물류중간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서 교통의 요지로 변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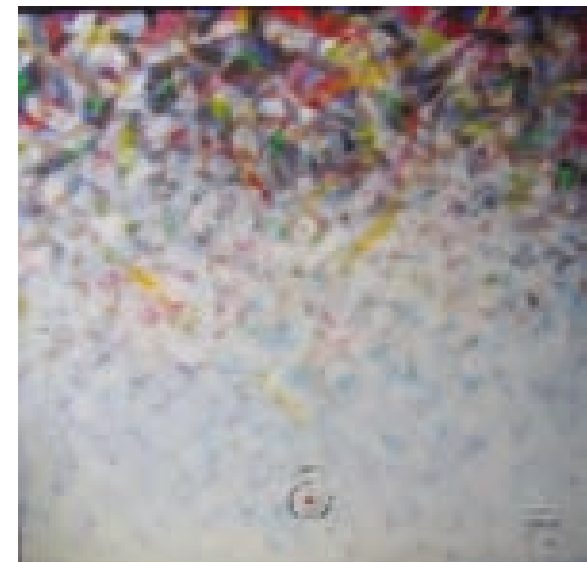
단양아리랑 2001

충남의 수도 대전은 규모나 명성, 위치로 봐서 시 자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그 대신 대전에 산재해 있는 문화원의 활동이 활발한 것도 특색이다. 어느 지역보다도 대전의 서구문화원이나 동구문화원등을 비롯한 문화원은 전국적 문화 행사를 한다. 예컨대 전국 학생회호대회라던가 미술대회를 개최한다. 예산문제 인원부족등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물론 시에서도 월별 문화관광 코스 등을 개발, 많은 참여와 유도를 하고 있지만 대전시내의 각 문화원의 역할이 더 돋보이는 것도 지켜 볼만한 것이다.

아산과 천안 온양 등을 묶은 이 지역도 문화적 활동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판단된다. 서울과의 지하철 등 접근이 용이하고, 대학이 많아서 유동인구도 풍부해 문화적 욕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 그러나 산업도시도 아니고 물류도 아닌, 농업기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듯하다. ☼



김정 원로화가, 서양화



천안만세아리랑 1992

서울특별시지회

‘2008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한국문화원연합회서울지회(지회장 김영섭)는 9월 8일부터 2일간 서울시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2008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를 가졌다.

이날 경연은 서울시 24개 문화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강좌를 통해 배우고 익힌 기량을 선보이는 대회로서 25개의 국악 팀과 20개 무용 팀이 참가하였다.

김영섭 지회장과 서울시 엄연숙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하여 각 문화원장 및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첫째 날 국악경연에서는 동대문문화원의 경기민요 팀이 영예의 대상을 받았으며 관악문화원 경기민요 팀이 최우수상을, 광진문화원의 남도민요 팀이 금상을, 구로문화원과 양천문화원의 서도민요 팀과 사물놀이 팀이 각각 은상을 차지하였다.

둘째 날 무용부분에서는 중구문화원 한국무용 팀이 대상을, 중랑문화원 한국무용 팀과 송파문화원 한국무용 팀이 최우수상과 금상을, 성북문화원과 광진문화원의 한국무용 팀이 각각 은상을 받았다.

김영섭 지회장은 폐막 인사를 통해 국악, 무용 출전 팀 전체의 기량이 해마다 늘어서 이제는 마치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 수준에 이르러 심사위원들이 수상자 선정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할 정도로 수준이 향상되어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충청북도지회

2008충청북도 학생국악경연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북도지회(지회장 장현석)는 9월 27일 청주시민회관과 청주문화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국악협회의 후원으로 2008충청북도 학생국악경연대회를 열었다.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국악경연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민족 고유음악인 국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도모함은 물론 청소년 전통음악 축제의 장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기회를 제공,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꾀한다는 목적아래 열린 이번 경연대회에서 종합대상은 영동인터넷고 김영자 외 44명이 차지했으며 주성초 정선미 외 3명(초등부 단체, 풍물), 남한강초 오연태 외 20명(초등부 단체, 기악), 사직초 어인정(초등부 개인), 진천중 김종진 외 13명(중등부 단체, 풍물), 황간중 신민정 외 43명(중등부 단체, 기악), 청주여중 어진이(중등부 개인), 청주농고 한준희 외 7명(고등부 단체, 풍물), 청주대성여상 최혜령 외 18명(고등부 단체, 기악), 신흥고 유용주(고등부 개인) 학생이 각각 금상을 차지했으며 이밖에 은상 9개 팀과 동상 7개 팀, 장려상을 포함해서 영동인터넷고와 주성초·남한강초·진천중·황간중·청주농고·청주대성여상에는 지도교사상이 각각 수여되었다.



경기도지회

제7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지회장 남선우)는 9월 5일부터 2일간 성남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가 주최하고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후원하는 제7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를 주관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과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을 비롯해서 경기도 지역 문화원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 성남문화원 한준섭 원장의 개막선언에 이어 이대엽 성남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예술제에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1백만 성남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남선우 경기도지회장은 민속예술은 사라진 뒤에는 되살리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을 전제, 민속예술의 원형 발굴은 미래 자산의 축적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창조적 산업화는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대회사를 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은 우리 문화의 원형인 민속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우리 것을 찾고 배우려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내실 있는 예술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한편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은 예술제에 참가한 여러분들이 좋은 추억을 가득 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대회 첫 날에는 성남시립국악단과 빠빠디바의 축하 공연과 함께 ‘양평 나물노래와 목도소리’ ‘옷다리 평택농악’ ‘안양 옷다리 날피농악’ ‘광명 농악’ ‘양주 들노래’ ‘포천 동해세우기’ ‘부천 중리 풍물놀이’ ‘여주 옷다리풍물’ ‘가평 옷다리풍물’ ‘구리 지경다지기’ ‘과천 무등답교놀이’ ‘오산 옷다리풍물놀이’ ‘광주 광지원농악’ ‘안산 와리풍물놀이’의 경연이 이어졌고, 둘째 날에는 ‘안성 장터’ ‘김포지경다지기놀이’ ‘이천풍물놀이’ ‘시흥 월미두레풍물놀이’ ‘성남 오리뜰두레농악’ ‘수원 재인청농악’ ‘동두내두레소리’ ‘연천 아미산올어리’ ‘의정부 정주당놀이’ ‘파주 교하두레풍물’ ‘전통 화성드레’ ‘남양주 풍물판굿’ ‘군포 두레마을 논메는 소리’ 등 총 28개 팀이 자기 고장의 풍물과 농악 등 다채로운 민속 경연을 펼친 결과 고양시 마두장군놀이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고 파주시 교하두레풍물놀이가 최우수상을, 광명농악과 양평 나물노래와 목도소리가 우수상을, 그리고 옷다리 평택농악과 성남 오리뜰두레농악, 과천 무등답교놀이, 부천 중리풍물놀이, 안산 와리풍물놀이가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경상남도지회

경상도사투리(우리고장 말)말하기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지회장 조훈래)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함안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에서 조영규 함안군수와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조진래 의원을 비롯해서 경상남도 관계자 및 시·군 문화원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주최,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남도교육청, 함안군의 후원으로 제2회 경상남도지사배 경상도사투리(우리고장 말) 말하기대회를 주관했다. 김태호 경상남도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고대 신라어의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경상도 사투리 속에 옛 문물과 풍속, 아름다운 낱말들을 발굴, 소생시킴으로서 전통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뜻 깊은 사투리의 향연이 되길 바란다'고 했으며, 조훈래 지회장은 '사투리는 지역 주민의 정서가 녹아 있는 지역 고유의 언어로서, 지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독특한 지방문화의 뿌리로, 이 대회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과 지역 주민의 애환과 정서를 찾아내고 다듬어, 사투리용변대회가 지역문화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같이 경상도사투리의 고유한 맛과 지역문화 특성을 담은 말하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표준어와 구별되는 사투리가 갖는 고유한 가치와 정이 깃든 내고장을 홍보하고자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어 지역 주민은 물론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 총 36명의 연사가 참가하여 재능을 겨룬 결과, '소도둑 이바구'라는 제목의 안복수 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으며 금상에는 통영초 1년 이여진 학생과 밀양여중 3년 이아란 학생이, 대학 및 일반부에서는 함안군의 이병숙 씨가 각각 수상하였다.

삼척문화원

삼척 전통예절학교 개설



삼척문화원(원장 장세훈)은 지난 8월 11일부터 4일간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실을 열고 전통예절 일반과 한복 바로입기 및 몸가짐, 공수, 배례법, 바른 인사말, 다도(茶道), 방문예절 등에 대한 교실을 열었으며, 9월 매주 수요일 저녁시간을 이용, 생활예절교실을 열고 가정과 부부, 언어, 직장예절을 익히는 한편, 10월에는 관혼상제의 바른 격식과 절차, 상견례 예절, 문상예절, 장례문화, 지방·축문쓰기, 제사상 차리기 및 제사지내기에 이르기까지 실습을 통해서 익히는 가정의례교실을 열어 체계적인 관혼상제에 대한 예법을 공부하기로 했다.

서울 강북문화원

제12회 삼각산축제



서울 강북문화원(원장 정수인)은 10월 3일 오전 10시를 기해 우이동 솔밭 근린공원에서 강북구와 강북구의회, 큐릭스방송 후원으로 제12회 삼각산축제를 열었다. 강북문화원은 우리의 정체성 확립운동의 일환으로 삼각산축제를 시작한 지 12년째를 맞이하여 수도 서울의 주산인 삼각산이 있는 국토의 중심지역에서 개천절인 10월 3일에 우리의 조상인 한인, 한웅, 단군 왕검 삼조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축제를 이어오고 있다. 수천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백운봉에서의 채화식과 함께 축제 장소인 솔밭공원까지의 길놀이가 벌어졌으며 박소정무용단의 선녀춤이 깃든 가운데 점화식이 거행되고 단군제례와 천도제, 작두공연 등에 이어 한국전통민요협회 님배예술단에 의해 경기민요와 동별 장기자랑과 현대무용, 일루션 마술공연, 타악 퍼포먼스 등 1·2부 행사외에도 먹거리 장터와 한지공예, 천연 향초와 양초만들기, 전통 탈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가 결집되었다.

용산문화원

2008용산구 청소년사생대회



용산문화원(원장 박영희)은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용산공원에서 관내 유치원생과 초·중등생 8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8용산구 청소년사생대회를 가졌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사생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예술적 소양을 계발하고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 용산의 이미지를 높여 생활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날의 사생대회 주제는 풍경화로써 크레파스와 수채화, 파스텔, 유화 등의 소재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29일 오후 5시 문화원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각 부문별 대상 및 금상을 비롯해서 60점의 입상작품에 대한 전시회도 함께 연다.

마포문화원

향토문화사랑운동

마포문화원(원장 이선재)은 9월 3일 향토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마포문화가족 및 양원지역봉사회 회원 50여명이 마포 관내 문화유적을 순회하면서 환경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가꾸기에 힘쓰고 있다.

양화대교 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망원정과 고려 31대 왕인 공민왕 사당을 비롯해서 외국인 묘지와 표석 주변에 대한 청소예 이르기까지 쓸고 닦으며 향토문화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데 앞장서오고 있다.

특히 망원정은 조선 제3대 왕인 태종임금의 둘째 아드님인 효령대군이 세종 6년인 1424년에 별장으로 지은 것인데 한강의 수려한 경치를 굽어보는 얇은 언덕 위에 서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의 많은 선비들이 즐기던 명소의 하나다.



부산 낙동문화원

우리고장 문화유적답사

낙동문화원(원장 백이성)은 지난 8월 21일부터 이틀간 관내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재 보호의식 함양 및 향토문화재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도모한다는 취지아래 우리고장 문화유적답사를 가졌다. 이날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행한 답사코스는 구포동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인 팽나무(당산나무)를 시작으로 부산시 지정문화재인 고려시대 절터 만덕사지(萬德寺址)와 지방 유형문화재인 당간지주(幢竿支柱)를 둘러보고 병풍암 석불사를 거쳐 효자 천승호(千乘昊)와 그의 부인인 열녀 이씨의 부모에 대한 효심을 기리기 위해 1892년(고종 9년)에 천씨를 통훈대부로 추증하고 이씨를 열녀로 추모하여 효자 열녀비를 세웠다는 효자 천승호 열녀 이씨 정려비를 비롯해서 부산 여촌민속박물관과 삼한시대, 고려, 조선시대에 걸친 분묘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 중에 40여 점이 전시되고 있는 문화빙상센터 유물전시관을 둘러 보는 것으로 답사 일정을 마쳤다.



이천문화원

망현산 오층석탑되찾기 범시민운동추진위 결성

이천문화원(원장 이상구)은 지난 8월 16일 오후 7시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망현산 오층석탑되찾기 범시민운동 결성식을 가졌다.

일제 강점기하에서 이천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 관리들의 전폭적인 협조아래 수탈해 간 망현산 오층석탑 반환운동 결성식에는 이천문화원을 비롯해서 예총과 의제21 등 이천시 21개 시민 사회단체 대표 및 관계자 3백여 명이 참석하여 석탑 반환운동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망현산 석탑의 기구한 운명을 주제로 한 판소리와 살풀이 춤 공연으로 막이 오른 이날 행사에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구 이천문화원장은 '이천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우리 대에서 이 석탑을 반환받지 못 한다면 아들 손자 대에 가서라도 꼭 돌려받겠다'는 각오로 석탑반환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오후 5시부터 세계도자센터 소강당에서 열린 기념세미나에서 조병돈 이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석탑 반환운동이 한·일 국제관계에 비추어 쉬운 일이 아니므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창진 씨는 그동안 일본 현지에서 석탑 반환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재일동포로서 '오층석탑 반환운동에 대한 고찰'을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가 있었다.



인천 연수문화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컬러풀 코리아'

인천 연수문화원(원장 김원옥)은 9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수·금·토 3회씩 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생활예절교육, 한국문화체험 등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컬러풀 코리아'를 갖고 있다.

연수구 후원으로 하고 있는 이 행사는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으로 또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본 소양에 중점을 둔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정서적 안정과 친화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한 소그룹 단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겪어가고 있다.



고흥문화원

찾아가는 들녘음악회

고흥문화원(원장 송문석)은 지난 8월 8일 저녁 동일면 덕흥해수욕장 소나무밭에서 고흥군과 고흥군의회, 동일면 후원으로 찾아가는 들녘음악회를 가졌다.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공연함으로써 문화향수권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의도에서 저녁 두 시간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김유현 외 14명으로 구성된 고흥북놀이팀의 공연과 문화원의 트로트, 순천 운죽공방 조용현 대표의 대금 연주,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판소리부문 대상을 수상한 라경자의 판소리 공연, 지리산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고명숙의 통기타 연주가 이어졌다.

이날 공연에 앞서 송문석 원장은 김남빈 동일면장과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에 감사한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구례문화원

구례장터 신명한마당

구례문화원(원장 우두성)은 5일마다(3일과 8일) 열리는 재래시장인 구례5일장을 활성화하여 상인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문화를 향유케 하며 평소 산나물과 각종 약재가 풍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구례를 찾아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에게 지역문화를 선보임으로써 구례문화의 특성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아래 매월 23일 장날을 기해 '구례장터 신명한마당'을 열어오고 있다.

농악 풍물공연을 비롯해서 한국춤·민요·판소리·품바·통기타가수 초청·밴드 초청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구례장터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기대와 함께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곡성문화원

2008올릉도, 독도문화유적답사

곡성문화원(원장 김학근)은 지난 8월 25일부터 3박4일간 문화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2008올릉도, 독도문화유적답사'의 기회를 가졌다.

각자 자비 부담으로 유적답사에 나선 38명의 회원들이 한 결 같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에 대해 규탄하면서 독도에 대한 역사공부를 하면서 독도를 직접 밟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전 대덕문화원

우리고장 생태문화 탐험

대덕문화원(원장 송성현)은 9월 7일 관내 장동 산디마을 일원에서 대덕의 숨결을 찾아 떠나는 우리고장 생태문화 탐험을 가졌다.

해마다 음력 정월 14일 저녁에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비는 탐제를 지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산디마을을 찾아 전국적으로 원형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산디마을 탐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동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뭇잎과 꽃잎을 이용, 손수건에 놓고 고무망치 등으로 두들겨서 식물에서 나오는 색소를 이용하여 손수건 물들이기 체험도 가졌다.

한편 엄마와 아이들고 조를 편성, 집집마다 방문하여 할머니 할아버지께 마을에 대한 전설을 듣고 10월에 지내는 제에 대한 조사를 펼침으로서 마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여 자부심을 갖게 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문경문화원

제11회 독서문화상 시상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은 10월 11일 문화원에서 제11회 독서문화상 시상식을 가졌다.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독서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를 꾀하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건전한 문화풍토를 조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월 19일까지 문경시에 거주하는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149점이 응모한 가운데 영예의 금상에는 일반부 박희성씨(산북면 거주)가 차지했으며, 학생부 금상에는 김가이(점촌초 5년), 지송은(마성중 3년), 전규석(문창고 2년)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 및 판권은 문경문화원에 귀속되며 연말에 '2008학생독서문화수상작품집'에 게재하여 각 급 학교에 배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도봉문화원

2008도봉산사진공모전



도봉문화원(원장 손영도)은 도봉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사진으로 발굴해서 우수한 작품을 보존하려는 취지로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도봉산 사진공모를 시행, 총 1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작품성 및 활용가치성, 지역홍보성 등을 평가한 결과 이광웅 씨의 '도봉산 비경' 이 영예의 금상을 받았으며 고명한 씨의 '자연의 신비 오봉'과 정인숙 씨의 '도봉산 이미지'가 은상을, 그리고 유미나 씨의 '무념무상'과 김동일 씨의 '도봉산의 봄', 최철용 씨의 '만장봉' 등이 각각 동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황규순 씨의 '포대능선의 여름' 등 29점이 입선작으로 선정되었다.

공주문화원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옥)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 간에 걸쳐 국립 중앙박물관과 수원 화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를 가졌다.

공주시와 공주시교육청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답사의 참가 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초·중·고교생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과 문화원 회원 28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공주문화원에서는 문화유적 순례 답사를 통해 공주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유적에 대한 애호의식을 일깨워주고 백제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조상의 얼과 정신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열린 콘서트 '하늘빛 그리움'

한편 9월 3일 저녁 문화원 강당에서 '하늘빛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강나영의 열린 콘서트가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뉴턴 현대음악 앙상블 초청, 피아니스트 강나영과 함께하는 열린 콘서트로 현대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나영 씨외 6명이 '하늘빛 그리움' '개논 변주곡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비롯해 6곡의 연주곡을 선보였다.

국악기와 양악기의 조화, 유명한 서양 작품과 한국적인 현대 작품이 다채롭게 연주됨으로서 가을 문턱에 접어들면서 해설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과천문화원

제2회 경기소리경창대회

제5회 한국추사서예대전

과천문화원(원장 최종수)은 10월 15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제5회 한국추사서예대전 입상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 한편 이날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과천시민회관 전시실과 다목적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과천시 주최, 과천문화원 주관아래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한국문화원연합회, 추사기념사업회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서예대전 시상식에서 문인화를 그린 박남정 씨가 대상으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부상 1천만 원)을 받았으며 한문의 정선화 씨가 최우수상으로 경기도지사상(부상 5백만 원)을 그리고 한문의 복정숙 씨와 추사체 민경재 씨, 한글 김영남 씨, 문인화 박경선 씨가 각각 우수상으로 과천시장상(부상 1백만 원)을 받았으며, 한문의 김현녀·방정환·서옥범·임용섭 씨와 추사체 유성호 씨, 한글 구미정 씨, 문인화 김성진·박등용 씨 등 8명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57명의 특선작품과 406명의 입선작품이 있다.



동해문화원

제3회 전국 리틀트로트가요제

동해문화원(원장 김형순)은 지난 10월 11일 동해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전국의 트롯 신동을 대상으로 제3회 전국 리틀트로트가요제를 개최했다.

공익채널 '복지TV'와 'YBS영동방송'이 주관·후원방송을 맡은 이날 대회에서는 현장 오디션 형태의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을 대상으로 본선이 이루어졌는데 영예의 대상에는 강원도 삼척시 김진이 양이 차지했으며 충북 충주시 이하은·이예은 쌍둥이자매가 금상을, 그리고 울산시 남구 달동에 거주하는 김희재 어린이와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이찬원 어린이가 각각 은상과 동상을, 동해시 청곡동 이슬 어린이가 인기상을 받았다.



구미문화원

2008한가위 송편 빚기
숨씨자랑대회

구미문화원(원장 김교승)은 지난 9월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금오산 도립공원 잔디밭에서 한가위 송편 빚기 숨씨자랑대회를 가졌다.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의 전통을 되새기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문화를 널리 보급하고자 마련한 이 행사에 구미시 읍 면 중에 거주하는 여성 및 여성단체 30개 팀 4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송편빚기 숨씨를 겨루면서 모듬북 무용과 민요 등 한가위 분위기를 돋우는 축하 공연도 함께 열려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예로부터 송편은 지역에 따라 재료와 모양이 다른 전통음식으로 이 날 숨씨를 겨룬 대회에서는 '우리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팀이 영예의 장원을 차지했으며 이 밖에도 차상 2개 팀과 차하 3개 팀 등 참가한 모든 단체가 현장에서 만든 송편을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시식하게 하는 등 화합된 모습도 보여줬다.



원주문화원

제3회 대한민국 운곡서예·문인화대전

원주문화원(원장 강태연)은 운곡 원천석 선생의 청고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부터 3일간 제3회 운곡서예·문인화대전의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634점의 작품을 접수했다.

한글과 한문, 문인화로 구분해서 심사를 하였는데 영예의 종합 대상에는 한문부문 예서를 출품한 김명희 씨가 차지하여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3백만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각 부문별 1명에게 주어지는 최우수상에는 한글에 우복희 씨, 한문 채금례 씨, 문인화에 박정숙 씨가 각각 상장과 함께 1백만원씩의 상금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각 부문별로 3명씩 총 9명에게는 우수상으로 상장과 5십만원의 부상이 주어졌다.

한편 입선작 이상의 작품은 10월 16일부터 12일간 문화원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함양문 화원

옥계 노 진 선생 학술회의

함양문화원(원장 김성진)은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조선 중기의 휴현 옥계 노 진 선생의 학문과 문학 및 정치가로서, 효자로서, 청백리로서의 삶을 재조명하여 고고한 그의 정신과 사상을 이어 받고자 경상대 남명학연구소와 함께 함양군 후원으로 '옥계 노 진 선생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학술회의의 좌장은 경상대 한문학과 허권수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제1부에서 경상대 한문학과 최석기 교수로부터 '옥계 노 진의 지취(志趣)와 학술',에 이어 서울대 규장각 정재훈 한국학연구원의 '옥계 노 진의 정치 사회적 활동',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신태영 객원연구원의 '옥계 노 진의 시(詩)연구', 서울대 국어국문과 이종목 교수의 '심진동 장수사와 옥계 노 진'이란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경상대 이상필·김준형·강정화 교수와 경북대 정우락 교수의 종합토론으로 4시간에 걸쳐 옥계 선생의 삶과 사상에 대해 진지한 접근을 모색했다.



금천문 화원

금천 한가위 대축제

금천문화원(원장 천용근)은 9월 17일 늦은 시간 금빛공원에서 제10회 금천 한가위 대축제를 열고 한가위를 맞은 지역 주민들과 곁여가는 초가을 밤 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문화원 풍물반의 흥겨운 풍물공연으로 시작된 제1부에서 어린이들의 깜찍한 밸리댄스와 사랑댄스, 이화여대 댄스동아리의 현란한 댄스 시연과 문화원 민요반의 풍년가와 청춘가에 이어 우리 춤 체조반의 체조 공연과 전통무용반의 굿무, 밸리댄스반이 태극기를 주제로 한 사랑댄스로 흥을 돋우었고, 2부에서는 예선을 거친 17명의 각동 대표 출연자들의 열창이 이어진 끝에 시흥4동 노금선 씨가 최우수상을 차지했고 독산4동 지명자 씨가 금상을, 독산1동 천선주 씨가 은상, 시흥1동 이영복 씨가 동상을 수상했는데 하면 땀벌의 강진 등 초대 가수들이 출연하여 관중과 하나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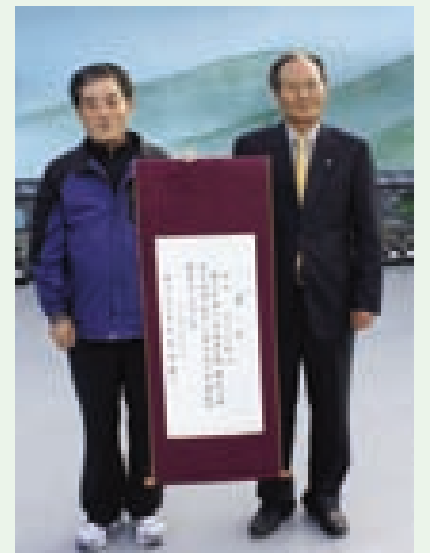
광주문 화원

광주 남한산성 백일장·위호대회

광주문화원(원장 이상복)은 제13회를 맞이하는 광주 남한산성 문화제와 더불어 백일장과 위호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학창작의 열정을 북돋우고 미래의 우수한 작가로 육성하여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동양의 전통적 예술인 서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 서화인의 저변확대와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한다는 취지아래 지난 9월 19일과 21일에 남한산성내 연무관과 남한산성초등학교에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광주교육청 후원으로 백일장과 위호대회를 각각 열었다.

광주시 관내 학생으로 참가자격이 제한된 백일장 수상자로는 광지원초 5년 정그린, 곤지암중 2년 황채린, 광주 중앙고 1년 강해리 학생이 각각 대상을, 탄벌초 6년 이찬호, 경안중 2년 이경서, 경화고 1년 최나리 학생이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으며 이 밖에도 7명의 금상과 11명의 은상, 17명의 동상을 비롯해서 35명이 입선을 하였다.

그리고 남한산성과 관계가 깊은 광주시를 위시해서 성남시, 하남시, 서울 강동구·송파구·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청자격이 제한된 위호대회의 대상은 이견철 씨를 비롯해서 장말순 씨와 송치순 씨가 각각 특별상을, 차상에 김중순 씨와 황남순 씨, 차하에 김명자 씨와 조영자 씨, 김진애 씨가 각각 차지했다.



홍천문화원

가을음악회와 영화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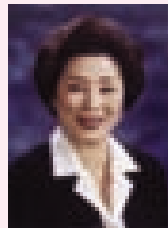
홍천문화원(원장 장재찬)은 9월 20일 저녁시간에 문화원 대강당에서 홍천군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영화 상영을 결정한 가을음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문화 소외지역의 근로자 또는 청소년과 군 장병을 대상으로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1부 가을밤음악회에서는 강원경찰악대의 매직슬라이드 연주 등 경음악 연주를 비롯해서 바리톤 조용원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모짜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아리아 '더 이상 못 날으리'를 열창한 데 이어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김성민의 헝가리 민속음악 '짜르다시'와 '내 사랑 내 곁에'를 연주하고, 색소폰 김성진의 '데니 보이'와 '밤안개', 가수 임종삼의 '제비'와 '민들레 홀씨되어' 등을 열창하여 좌중의 흥을 돋우었으며, 2부 순서로 '식객'이 상영되었다.

성남문화원

제11회 강정일당상에 이영성 씨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어진 인품과 부덕을 갖춘 훌륭한 여성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되는 여성을 선발,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어 추앙받고 있는 조선 후기 여류문사 강정일당(1772-1832)의 업적을 기리고자 10월 10일 문화원의 날을 맞아 남한산성보존협의회 대표로 경기도 유적지 보존에 큰 업적을 쌓았으며 향토문화와 전통생활 전승 및 보존에 앞장서온 이영성(69) 씨를 제11회 강정일당상 수상자로 선정,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1백만 원을 받았다.

이 상의 수상 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했거나 성남시에서 활동한 여성으로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터운 50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사회단체나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저명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울산 남구문화원

추석민속놀이 한마당



울산 남구문화원(원장 윤성태)은 9월 11일 오전 11시부터 문화원 정원에서 추석민속놀이 한마당을 펼치고 '더도덜도 말고 가윗날만 같다'라는 한 해의 풍성함을 만끽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몸으로 익히게 하며, 사회와 주민은 하나라는 통념을 세시풍속을 통해 축제로 접하게 한다는 취지아래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복돋우고자 민요경창과 풍물놀이, 시조창, 널뛰기, 윷놀이, 투호, 투환 등의 중목을 중심으로 예선과 결선이 이루어졌으며 이와는 별도로 떡만들기 시연의 일환으로 벌어진 떡메치기 체험은 세시풍속의 진수를 엿보게 했다.

김해문화원

문화가족 문화역사탐방



김해문화원(원장 한고희)은 9월 23일 경북 영천지방에 대한 문화가족 문화역사 탐방 길에 올랐다.

금년 들어 네 번째로 탐방 길에 나선 일행은 먼저 영천시 도남동에 위치한 보물 제517호로 지정된 신라 법흥왕 23년(536)에 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영천청제비(永川靑堤碑)를 둘러본 다음 조선시대 정철, 윤선도와 함께 3대 시가인으로 꼽히는 노계 박인으로 선생의 위패를 모신 도계서원과 윤세를 점친다는 '돌할매', 조선 31본산, 경북5대본산으로 현재는 대한불교 제10교구본사의 자리를 지키는 대표적 사찰 은해사와 몇 개 안되는 고려시대 목조건축물 중의 하나인 거조암, 고려 공민왕 17년 당시 부사였던 이용이 건립한 영천 조양각을 비롯해서 조선 세종 원년 쓰시마 정벌과 야인 토벌 등에 혁혁한 공을 세워 복장군이라 불리었던 명장 위양공 이순몽(威襄公 李順蒙) 장군이 기거했다는 숭렬당(崇烈堂) 답사를 끝으로 신라·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문화역사탐방을 마무리했다.

인천 서구문화원

화문석마루로 떠나는 토요일화나들이

인천 서구문화원(원장 정명표)은 9월 27일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를 찾아 토요일화나들이를 가졌다. 가족단위로 팀이 구성된 이번 나들이는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서 강화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면서 먼저 강화화문석마루에 들러 강화특산물인 화문석 찌기 체험에 참가했다. 여러 가지 색으로 채색된 왕골을 소재로 직접 화문석을 찌는 비법을 채득해 나가면서 감탄의 소리가 빗발쳤다.

오후 수확체험행사인 고구마 캐기에서는 속노란 고구마로 유명한 강화고구마를 엄마 아빠와 함께 호미를 들고 캐다가 지렁이에 놀라면서도 캔만큼 가져갈 수 있어 저마다 수고를 감내하면서 수확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두부와 순무김치 만들기에서는 콩을 맷돌에 직접 갈아 장작불을 지핀 가마솥에 넣고 끓이는 광경과 함께 온 몸이 고춧가루 범벅이 되어 순무김치를 담그면서도 순무 특유의 씹쓸함과 아삭아삭한 맛의 체험은 평생 잊지 못할 즐거움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줄곧 화제로 이어졌다.



포천문화원

동거가족 위한 전통혼례식 마련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9월 27일 소흘읍 직동리에 위치한 '민들레 올'에서 영북면 자일리에 거주하는 장인산·엘브에스파르시아 가족과 이동면 노곡리에 사는 문홍직·황순이 가족, 최창남·조경원 가족에게 백년가약의 예식을 치르게 했다. 가정형편으로 혼례식을 갖지 못한 이들 동거가족을 위해 전통혼례식을 마련한 포천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민들레 올' 방원수 사장이 음식과 장소를 제공했으며 포천향교와 포천청년유도회, 여성유도회에서 집례를 담당하는 한편 포천시 기관 단체장을 비롯하여 문화원 임원과 회원 등 2백 여 명으로부터 축하를 받으면서 문화원 사물놀이반과 민요반의 흥겨운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전통혼례식을 그대로 재현한 이날 행사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날 전통혼례의 집례에 앞서 이만구 원장은 어려운 생활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하여 세 동거가족의 앞날을 축하하며 도움을 준 주위 분들의 은혜도 잊지 말기를 당부했다.



안동문화원

제38회 안동민속축제



안동문화원(원장 김준식)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탈춤공원을 비롯하여 시내 일원에서 안동시와 함께 안동민속축제를 주관했다.

경상북도와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KBS안동방송국, 안동문화방송, 영남방송의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는 안동지역에서 행해져 오던 대동놀이, 마을축제 등 마을단위에서 전승되어 오던 놀이를 모아 근대화 과정에서 인구가동이 심해 1968년부터 안동민속축제로 연결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축제이다.

행사를 대별해 보면 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인 차전놀이와 한두실 행상소리, 논다리 밟기, 저전동 농요,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무형문화재 공연과 정부인 안동장씨 추모 여성회포대회와 옛 성인들이 글을 읽는 방식으로 암송하는 것을 겨루는 경전암송대회와 24개 읍·면 동이 펼치는 시민화합한마당대회, 태서지구 및 경북북부지역 17개 군도회가 참여하는 군도대회와 짚?풀공예 경연대회 및 씨름대회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회가 안동문화원 등 행사주관 단체별로 각각 열렸으며 이 밖에도 축제 첫 시간에 산천대천에 알리는 고유제로 안동유도회가 주관하는 서제와 경북북부지역 경신연합회 주관으로 벌이는 성황제 및 굿한마당, 내방가사 경창시연, 곡식제배의 마지막 단계인 탈곡시연, 도산별시, 옛 조상들의 음주예절인 향음주례, 사찰 스님들에 의한 불교음악을 선보이는 범패시연 및 등 축제, 옛 선현들을 추모하는 행사로서 안동시장과 안동시의회 의장, 문화원장이 헌관이 되어 헌다와 헌화를 하는 헌다례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 기간 안동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전주 문화원

주제가 있는 문화유적답사

전주문화원(원장 서 승)은 9월 19일 황방산 일대와 전주시 일원의 문화유적을 대상으로 '주제가 있는 문화유적답사'를 가졌다.

4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답사 장소의 하나인 팔과정(八科亭)은 조선 후기 학자인 진사 송사심(宋士深)이 학문이 깊어 4조(광해군·인조·효종·현종)에 걸쳐 그의 문하에서 문과 급제자가 8명(홍남립, 이흥발·이기발·이생발 3형제와 이후선·이순선 형제, 이흥록, 송상주)이나 배출시켰다 해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 정자를 짓고 그 뜻을 기리고 있어 지금도 팔복동에 가면 이 분들을 기리는 팔과정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1984년 지방문화재자료 제8호로 지정된 추천대(湫川臺)는 덕진구 팔복동에 자리하고 있다. 1879년에 건립된 것으로 상량문에 적혀 있는 팔각지붕의 누정인 추천대는 조선 성종조에서 대사헌 및 예조참판, 병조참판, 동지중추부사, 동지경연사 등의 벼슬을 역임한 추탄 이경동(湫灘 李瓊全)이 낙향하여 추천에 낙신타를 드리우고 말년을 유유자적하며 보낸 곳으로 그 후손들에 의해 승모의 대상으로 기리고자 세웠다고 전한다.

그리고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서고사(西固寺)는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국운회복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코자 명덕스님에게 절을 창건토록 해서 세운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날 답사는 황방고성과 황방각석을 둘러보고 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2호로 지정된 황강서원을 끝으로 '주제가 있는 문화유적답사'를 모두 마쳤다.



서울 강동 문화원

계간지 '좋은 동네' 가을호 발행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은 10월 21일 계간지 '좋은 동네' 가을호를 발행했다.

2007년 12월 겨울호를 시작으로 해서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 '좋은 동네'는 약 2천부를 발간하여 철마다 전국 문화원, 서울시내 도서관, 관내 문화예술인, 문화원 회원 등을 대상으로 강동구의 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좋은 동네'는 이번 가을호까지, 통권 4호에 걸쳐 총 79명의 예술인들이 작품을 발표했으며, 계간지를 통하여 예술인들에게는 좀 더 쉽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계간지 '좋은 동네'가 앞으로도 강동의 문화·예술 및 향토사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주민들의 자부심과 애乡심을 고취시키기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진천 문화원

진천군민을 위한 수요일 영화 상영

진천문화원(원장 남명수)은 9월 중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문화원 영화관에서 진천군민을 위한 수요일 영화 상영시간을 가졌다.

첫째 주 수요일부터 1960년도에 제작한 작품으로 위기에 처한 아버지와 가족 간에 의견 충돌 등 해브닝을 재치와 함께 보여 준 '로맨스 빠빠'를 상영한데 이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자와 소년이 미워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별하며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열한 번째 엄마'와 1964년도 작품인 '벼어리 삼룡'을 비롯해서 역사 속에 실존했던 소재를 모티브로 하여 잃어버린 '동방의 빛'을 일 본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한 통쾌한 드라마 '원스 어폰 어 타임' 등을 상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동두천 문화원

제3회 소요산전국서예대전

동두천문화원(원장 안민규)은 전통문화 예술의 기반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여 창의적 소질을 펼쳐나 갈 수 있도록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서예발전과 전통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아래 제3회 소요산전국서예대전을 개최했다.

10월 29일부터 5일간 소요산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이 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은 서예부문에 이근분 씨가, 그리고 최우수상에 서예부문 이종걸 씨와 한국화 부문 이상우 씨가 각각 차지했으며, 서예 송민호·이영애·정영숙·조숙연 씨와 문인화 최영숙 씨, 한국화 손영숙 씨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그리고 학생부 대상에는 이지원(서예)학생이 차지했으며 고효정(서예)·우수지(문인화)학생이 최우수상을, 서예 고민정·김소연·함유민 학생과 문인화 김태은·윤예은 학생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마산문화원

제14회 마산문화축제



마산문화원(원장 임영주)은 10월 1일부터 1개월간 문화원과 산호공원 일원에서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마산교육청의 후원으로 제14회 마산문화축제를 열었다.

축제기간 주요행사는 마산성신대제를 복원하여 마산과 마산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성신대제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마산성신대제의 복원모형 연구에 대해 별신대 세우기와 선유락, 성신제당 제의, 별신굿 등을 중심으로 노성미·이경미·김지민 씨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정리하여 단계적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시(詩)의 거리를 기념하는 제37회 한글백일장이 초·중·고·일반부로 나누어 치러졌으며, 마산영화자료관에서는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1950년대 외국영화포스터전시회와 추억의 한국영화감상회를 갖고 영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폭넓은 문화향유를 접하는 한편 마산씨네마 7개관에서는 문화가족을 위한 좋은 영화감상회에 국내외 우수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했다.

10월 25일 문화원 강당에서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 및 일반부로 구분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충효사상, 청소년범죄예방,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등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마산문화융변대회를 가졌다.

이외에도 올림픽기념공원에서 문화학교 발표공연을 비롯하여 대마도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취지에서 해양법 및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김영구 박사를 초청, 역사문화강연회를 가졌으며 향토작가 회화전과 대마도 속의 우리 역사문화사진 100여점이 전시되는 등 장장 한달 간의 축제기간을 통해 마산시민의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양구문화원

2008 2차 문화예술탐방



양구문화원(원장 정유수)은 지난 9월 27일 관내 초·중등생과 어르신 80여 명으로 문화예술탐방단을 구성, 서울 혜화동 소재 창조콘서트홀에서 뮤지컬 '넌센스'를 관람했다.

문화예술의 혜택이 적은 지역의 활동범위를 넓혀 도시지역의 문화예술탐방 기회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탐방은 지난번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계미술거장전 관람에 이어 두 번째로 맞이한 행사로서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를 갖게 된 뮤지컬 장르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음을 보람으로 여기는 한편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의 체험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다.

인천 계양문화원

제9회 이규보 선생 서화예술대전



인천 계양문화원(원장 이창규)은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계양구청 전시실에서 제9회 이규보 선생 서화예술대전 출품작 가운데 입선작 이상에 대한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고려 말 부평도호부사로 부임하여 수많은 시편을 남김으로서 동국여지승람과 부천읍지 등에 수록된 바 있는 대문장가인 이규보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자 해마다 갖고 있는 이 서화예술대전에서 한동미 씨(한글 부문 이규보 선생 시)와 김연숙 씨(한문부문 이규보 선생 시), 손숙희 씨(서양화), 송강림 씨(한국화)가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인명여고 3학년의 주혜수 학생이 학생부 대상(한문서예부문)을 차지했고, 구월여중 3년 강인성, 부명고 2년 박지연, 안산초 3년 김제아, 신대초 6년 이혜민, 서인천고 1년 이호수 학생이 각각 학생부 최우수상을 받았다.

남해문화원

이호균 원장 다문화가족 인권보호정책 토론회 패널로 참석



남해문화원 이호균 원장은 지난 9월 8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다문화가족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였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이인기) 다문화가족인권보호 소위원회장인 국회 여상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 설동훈 교수의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권보호?지원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보건복지가족부 박난숙 과장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지원시책'이라는 발제에 대해 지정토론자들이 토론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의 '오늘 토론회가 다문화가족 인권향상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격려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호균 원장은 한국문화원 중에서 다문화사업의 선두주자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사례발표와 함께 진행 중인 국가시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그 2세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 도입, 가족 구성원 간의 다문화교육으로 이들의 정착을 돕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정책입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월문화원

2008 경로효친수범자 표창



영월문화원(원장 유성목)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경로효친사상을 보다 확고히 하고 아름다운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의도에서 경로효친 부문 수범자 표창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2일까지 영월군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심사한 결과 수범자로 영월읍 영흥리 정차복 씨와 영월읍 덕포리 김매화 씨를 선정했다. 정차복 씨는 34세의 주부로서 어린 나이에 영월로 시집와 9년째 중풍 및 고관절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효심이 지극하고 남편의 내조와 자녀교육에도 헌신적이어서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으며, 김매화 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는 남편과 결혼, 지병으로 병상에 있는 시어머니를 십여 년째 극진히 간병하는 한편 공사판에서 척추를 다친 남편까지 보살피면서 두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켰고, 경로당 노인들에게도 음식대접을 하면서 이웃 할머니를 보살피는 성실 근면한 51세의 주부이다.

대구 수성문화원

제2회 대구 고모령 효 축제



대구 수성문화원(원장 이영배)은 9월 20일부터 이틀간 대구스타디움 야외공연장에서 대구시 수성구와 대구시교육청, 대구향교, 한문연 대구시지회, 대구예총, KBS대구 등의 후원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대구 고모령 효축제를 가졌다.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가족 사랑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취지아래 마련한 이번 효 축제는 '고모령 효자원님'이라는 주제 공연과 함께 효 가요제를 비롯해 효 문예작품공모전, 부모님 얼굴그리기 전시, 가훈써주기, 무료 건강체크, 전통예절 체험, 시니어 나눔장터 등의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꾸며졌다. 첫날,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 이영배 원장은 '효의 실천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가는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이 오래 보전되고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행사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 축제를 활성화시켜서 효 정신을 널리 보급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둘째 날은 대구 효 가요제를 열고 초청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 12명이 열띤 경합을 벌인 가운데 대상과 금상, 은상 등 6명이 각각 수상했다.

보은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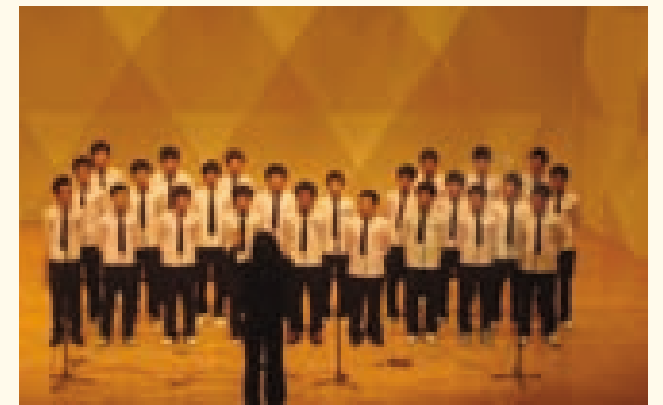
오장환 문학제



보은문화원(원장 김건식)은 10월 2일부터 이틀간 오장환문학관을 비롯해서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교육청 후원으로 오장환 문학제를 열었다. 한국 근대문학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천재 시인 오장환을 기리고 문학적 성취를 재조명하고자 전국 단위의 문학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취지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창장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에게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함께 정서함양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문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한다는 뜻을 모으고 있다. 1,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문학제에서 '오장환 시의 근대성 연구'에 대한 학술세미나와 오장환 문학상 시상식, 백일장, 시·그림그리기, 시 낭송회, 축하공연 및 시노래 콘서트, 시화전·시그림전 등의 전시행사가 폭넓게 펼쳐졌다.

장흥문화원

푸른꿈 정다운 노래 한마당



장흥문화원(원장 김기홍)은 지난 9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장흥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전라남도와 장흥군, 장흥교육청, 장흥청소년수련관 후원으로 초·중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9회 푸른꿈 정다운 노래 한마당'을 열었다. 음악을 통해 사회 정서 순화에 기여하고 음악의 저변확대로 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 지역 청소년들의 예술활동 영역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노래부르기를 통해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노래 한마당에서 장흥초등학교 합창단과 장흥여자중학교 합창단이 각각 상장 영예의 금상을 차지하였다.

청주문화원

청주문화 바로알기 시티투어

청주문화원(원장 장현석)은 청주문화를 바로 알고 지역문화 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워 문화시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높이고자 '청주문화 바로알기 시티투어'를 하고 있다.

하절기를 맞아 매주 화요일에 전통 공예체험을 포함한 '여름특선 어린이 시티투어'도 함께 운영하였는데 선착순 40명을 모집하여 구한말 독립운동가요 언론인이며 역사학자로 일제와 온몸으로 맞서 싸우다 옥사한 단재 신채호 영당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인쇄한 고인쇄박물관과 사적 제319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무심천변의 청주 백제유물전시관을 둘러보고 한지공예, 나전칠기, 가족목걸이 등의 전통공예 체험을 하였다.



파주문화원

민통선 내 유적답사

파주문화원(원장 민태승)은 9월 27일 임진강 건너 민통선(민간인 통제선) 지역의 문화유산과 분단의 현장을 찾아 떠나는 유적답사를 가졌다.

답사 코스로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명의로서 동의보감의 저자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허준(許俊 1539~1615)선생의 묘소 참배에 이어 실향민 1세대와 연구자들을 위주로 3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해가 뜨는 언덕마을'이라는 뜻의 '해마루촌'은 1998년 국책사업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2001년에 분양된 마을이다.

제3땅굴과 DMZ영상관, 도라산 전망대를 돌아보고 남방한계선과 불과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 최북단 철도역인 도라산역은 2000년 경의선복원사업에 의해 2002년 초 도라산역이 들어서 남쪽 임진강역까지 4km구간을 연결하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해발 156m의 도라산(都羅山)에서 역 이름을 따온 것이다.

이날 답사팀 일행은 도라산역 앞에서 남북 철도연결과 통일을 위한 만세로 체험일정을 마쳤다.



증평문화원

2008증평문화홍삼포크인삼축제

증평문화원(원장 최건성)은 10월 3일 증평읍 송산리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삼 캐기를 시작으로 건립 60주년을 맞는 증평 단군전 개천대제와 농산품품평회, 인삼전시 판매, 햅쌀밥 짓기, 인삼 배 바둑대회가 열렸으며 둘째 날인 4일에는 대한양돈협회 주관으로 150m 길이의 초대형 구이 판에 홍삼포크 삼겹살 700kg이 제공되어 참석한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시식하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름 3m 80cm의 대형 솥에 밥과 나물을 넣고 유명호 증평군수와 최건성 축제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10여 명이 직접 만들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통혼례, 직지소리 국악한마당,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영산대제 마을대항풍물대회, 장돌두레 시연, 천연염색, 솥대 만들기, 도자기,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최 원장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번 축제를 모델로 앞으로도 증평의 특색 있는 문화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문화원

오메기 옛길 걷기대회

의왕문화원(원장 이종훈)은 10월 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간 의왕 오메기 옛길 걷기대회를 가졌다.

오메기 옛길은 과거 시민들의 주된 통행로로 사용되다 새로운 도로건설 등으로 길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왔는데 백운예술축제를 맞이하여 걷기대회 참가자들은 의왕문화원을 출발, 모락산 자락의 오메기 옛길을 따라 백운호수에 이르는 3km 구간을 걸으며 미술작품과 옛 사진 등 자연사진 작품을 감상하면서 돌탑에서는 소원을 비는 등 보물찾기를 하며 걸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맛보면서 선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역사현장을 탐방하는 소중한 행사를 가졌다.



강화문화원

제1회 하곡제 봉행

강화문화원(원장 남궁신)은 지난 9월 10일 오전 10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하곡 정제두(霞谷 鄭齊斗) 선생 묘역에서 한국양명학회, 영일정씨종친회와 함께 제1회 하곡제를 봉행했다.

강화군과 강화향교, 한국차문화협회 강화지부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제례는 인천시 지원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곡 선생이 강화도 하일리에 정착하여 강화학파의 학맥을 전수하신지 300주년이 되는 2009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곡은 우암 송시열의 문인 이사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32세 때 영의정의 천거로 관직에 나서 사헌부 장령, 이조참판, 의정부 우참찬을 지낸바 있으며 조선 후기 한국 양명학을 창시, 실리중심의 실용실학과 달리 실심실학(實心實學)을 주장한 인물로서 주자학 중심의 당시 조선사회에서 이단으로 몰렸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그의 사상을 계승한 국학운동가들이 정치적 학문적 탄압을 받기도 했다. 하곡제봉행추진위원회의 관계자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에서도 2009인천방문의 해와 2012아시안게임 등을 유치하며 인천정신의 사상적 뿌리인 실심실학의 하곡정신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상적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곡제 봉행은 최근덕 성균관장과 박연수 한국양명학회장, 남궁신 원장이 헌관을 맡았다.



인천 남구학산문화원

2008 주안미디어문화축전

인천 남구학산문화원(원장 이선규)은 지난 9월 26일부터 3일간 주안역 미추홀로 영화공간 주안,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제5회 '2008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을 열었다.

원시적 미디어인 '몸'과 '언어'로 관객과 소통하는 거리극 공연이 관객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았으며 휴대폰존, 올드미디어존, 뉴미디어존 등 5개 존으로 구성된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천 명이 함께 즐길 수 있었는데 메인무대에서는 청소년동아리한마당, 미디어아트 공연, ETN 뮤직스페셜 등이 참여자와 관객을 하나로 연결하는 소통의 매신저로서 진행되었다.

아울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영화공간주안,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3D입체영상체험, e감성영화제, 남구의 과거와 미래의 역사갤러리, 한마음나눔장터 등 다양한 연계행사도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책갈피

城南文化院三十年史

성남문화원 발행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여덟 번의 역대 원장, 임원, 사무국 직원을 비롯한 성남 문화가족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향토문화연구소' '성남 3·1운동기념사업회' '둔촌연구회' 등을 운영하면서, 신도시 성남지역의 향토유적 발굴과 향토인물 재조명, 민속예술 발굴과 재현, 강정일당·둔촌·송산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사업과 '문화학교' '문화의 집' 시민교육 위탁사업을 통해 성남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전통문화 창달과 계승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쌓아온 관련 기록들을 수집 편찬해 놓은 기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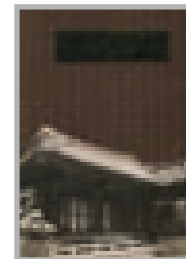


국역 유현집

장수문화원 발행

조선 중기의 유현(游峴) 정황(1512~1560)선생은 뇌계 유호인 선생과 함께 장수가 자랑하는 조선의 대표적 문신이자 문장가이다. 선생의 관향은 창원이며 자는 계희(季晦), 호를 유현이라 하였고 중종 7년 장수의 산서면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효행과 형제간의 우애가 남달랐다고 한다. 정암 조광조에게서 수학, 기묘사화로 스승을 잃은 뒤 친시(親試)에 합격하여 시간원정언, 서헌부지평, 병조·형조정랑, 교서관교리 겸 춘추관기주관이 되었으나 양재역박사사건으로 1547년 곤양에 유배되었으며 그 이듬해 다시 거제도도 이배되었다. 유배지에서도 학문에 정진하여 부원록(貞遠錄), 장행통고(張行通考), 유현집(游峴集)을 남겼으며 1560년 49세로 유명을 달리했다.

선생의 문집인 유현집은 모두 714권으로 1715년 5대손인 재흥(載興)이 시문을 모아 처음 간행하였고 그 후 중간하였으며 영인본이다. 선생의 교유를 비롯하여 지인을 대상으로 주고 받은 시문에는 충과 효를 바탕으로 하는 선생의 생활모습과 철학을 접할 수 있어 조선 중기 선비의 사상을 연구하는데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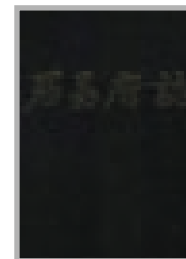


居昌府誌

거창문화원 발행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인 조선조 순조 때의 내용으로 이해되는 '거창부지'가 발견됨으로서 거창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활상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신라 경덕왕 16년부터 조선 정조 23년에 이르기까지 거창의 변천내력과 군명, 관직, 성씨, 산천, 호구, 전부(田賦), 군역, 학교, 능침, 누정, 도로, 고적, 과거, 인물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거창문화원 정주환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향토사 연구와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주석판(註釋版)을 발간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옛 일을 더듬어 향토의 역사와 얼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자 함이며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을 찾아 가꾸는 일'이라고 했다.



家庭儀禮寶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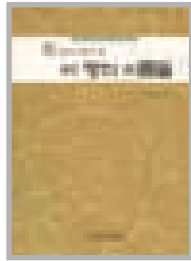
군위문화원 발행

전통혼례법절과 수연(壽宴)법절, 상례법절에 대한 절차 등을 기술해 놓았으며 현대식 결혼과 종교식 혼례,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상례와 종교식 상례를 비롯해서 제례법절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

군위문화원 박수호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전 계승시켜 우리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려 민족정신이 담겨 있는 전통문화 예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법전서를 만들어 오래도록 계승 보전하고자 이 책을 발간했다'고 전제하면서 '사람은 예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인간다운 인간으로 멋있게 살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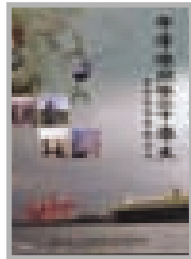
책갈피



확 뜯어고쳐야 할 이 땅의 이름들

이천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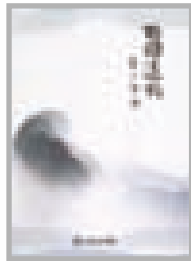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나 숨겨져 있던 문화유산을 지명을 통해 찾아낼 수도 있고, 조상들의 생활모습이나 풍속과 신앙을 알 수도 있으며, 지역문화 속에 스며든 외래문화의 영향을 살필 수도 있다고 이 책을 지은 향토사학자이면서 이천문화원 사무국장인 이인수 씨는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필자는 이천군 관내 650여 개의 마을을 중심으로 그 이름을 조사 분석하면서 아직도 일제 36년간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어 자손대대로 물려주게 될 정신유산인 우리말 지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제에 의해 수탈당한 이천향교 오충석탑 반환운동 등 일제 강점기의 문화재 유출에 대한 실상을 적시해 놓았으며 '이천지방의 역로(驛路)와 교통', 이천을 중심으로 한 향토사적 고찰 등을 중심으로 싣고 있다.



平澤港開港二十年史

평택문화원 발행

경기도 유일의 무역항인 평택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물류교역의 중심항으로 성장할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평택문화원 오용원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고기잡이 어선들이 드나들던 작은 포구 평택항이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 1990년 컨테이너 물량처리를 시작으로 대중국 교역에 이어 최근 미주항로를 운항함으로써 명실공히 국제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 책에는 평택항 개항 당시 LNG선 차려입항부터 현재까지의 평택항 현황 등을 수록해 놓았으며 평택항의 미래 비전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梧桐遺稿

곡성문화원 발행

구한말 곡성지역 문인과 유림들을 지도하고 지역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신 오강 김정호(梧桐 金正昊) 선생의 유고를 통하여 당시 곡성지방사를 고찰하고 지역문인들과 유림들의 생활상 및 상호 교류하면서 주고받은 글들과 감회를 엿볼 수 있으며 곡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물, 누정에서의 창작활동을 비롯한 역사적 사실들을 구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곡성문화원 김학근 원장이 발간사를 통해 밝히면서 구한말 곡성지방에 선현들의 문풍(文風)을 조명하는데도 좋은 계기가 될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



한성 백제시기의 문화와 생활

송파문화원 발행

선문대 역사학과 이형구 교수(고고학)에 의해 엮은 이 책은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비롯한 문헌 기록과 최근 고고학 성과를 통해 한성 백제시기의 문화와 생활사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한성 백제시기의 서울·경기·강원·충청지역의 주거문화와 복식, 음식, 제의와 신앙, 습속, 묘제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책갈피



새젓길에 남긴 비석들

문경문화원 발행

문경 새재의 연도에는 관찰사나 현감의 선정을 기리는 송덕비가 많다. 문경문화원 채대진 원장은 많은 송덕비가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새재가 한양과 경성도를 잇는 길목에 있고 대소관원과 진신장보(鎭神章甫)가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잘 알릴 수 있고 묵민관에게 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송덕비와 함께 새재와 조령성 축성과 관련한 기록을 비롯해서 관문과 성곽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횡성의 서낭당

횡성문화원 발행

우리가 지나온 삶을 회상하는 것이 단순히 그리움 때문만이 아니듯이, 한 때나마 마을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서낭당을 조사·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보다 밝은 우리네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횡성문화원 김광수 원장이 다짐하듯이 민속신앙으로 무병장수와 액운퇴치 및 소원성취를 기원하던 서낭당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는 횡성군 관내 각 읍·면에 위치한 서낭당의 현황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담양의 누정기행

담양문화원 발행

자연에 안긴 예술과 풍류와 정신수양의 도량인 정자가 담양에는 수도 없이 산재해 있다고 전제한 담양문화원 전이규 원장은 정자와 누각, 원림공간에는 항상 시와 담론과 인물이 함께 하였던바 '면앙정가' '성산별곡' '사미인곡' '낙지가' '소쇄원 48영' 등 완미한 문학과 송·송, 김인후, 정 철, 임억령, 고경명 등 걸출한 인물들의 격조 높은 담론이 넘쳐난다고 소개하고 있다. 소쇄원을 비롯해서 누정의 고장 담양에 산재해 있는 정자들의 사진과 역사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엄마, 아빠 손잡고 고향 가는 길

무안문화원 발행

무안문화원 서오근 원장은 원장 재임기간, 이 고장 출신 문인들이 남긴 문학작품을 총 정리하여 문학선집을 펴내기로 하고 한 시를 번역한 제권부터 '유성의 기행' '고향 언덕에서 부르는 노래' '고향 가는 길' 그리고 이번엔 동시, 동화, 희곡을 정리한 '엄마, 아빠 손잡고 고향 가는 길'을 발간함으로써 무안군이 낳은 중요한 모든 문학을 정리했다고 스스로 평가할 만큼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는 때에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과 감성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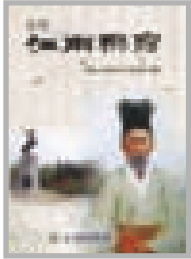
책갈피



순천 樓亭

순천문화원 발행

누정은 인간이 자연 속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자연과 일치하여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또 현실적 공간으로 정신을 수양하고 강학하여 인륜의 도를 가르치던 장, 자녀들과 후학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 문인들과 문학에 대해 토론을 벌이며 시단(詩壇)을 이루는 장, 유흥상경(遊興相敬)의 장, 종회(宗會)나 동회(洞會), 각종 계모임의 장, 고을의 문루, 치적 표상으로서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기능으로 우리 생활상 깊숙이 자리매김해 왔다. 순천시내와 승주읍, 주암·송광·낙안·별량·상사·해룡·서·황전·월등면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 누정을 일일이 소개해 놓았다.



국역 江南樂府

순천문화원 발행

‘강남’이라 함은 순천고을의 산천이 아름답고 풍속이 변화하여서 소강남(小江南)이라 불려왔기 때문이며 ‘악부’는 사실상 한 고을의 역사·풍속지이며 유사고(遺事考)이다. 기절(奇節)이나 숨겨진 일들이 묻히지 않게 드러냄으로서 후생들로 하여금 선인들의 사적을 배우고 잇게 하기 위해 전해오고 있는 글이다. 1992년에 초판이 발행되었으나 절판으로 보급이 중단되어 오던 터에 순천을 빛낸 율해의 인물 조현범 선생의 기념사업 일환으로 증판을 보게 된 것으로서 한글세대가 읽는데 부담이 없도록 편집해 놓았다.



하늘을 감동시킨 효자

순천문화원 발행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1784년에 쓰여 진 조현범 선생이 쓴 한시 ‘강남악부’에 수록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재미있고 실감나는 구어체로 다시 쓰여 진 구연동화집이다. 순천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순천지역 어린이들과 순천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 주고 많은 감동을 전해 줄 그림이야기책이다.



지평리를 사수하라

양평문화원 발행

현재 군사유적지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 책의 원 저자 이정환 선생은 2000년부터 전사(戰史)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에 여념이 없던 중, 6천명의 병력으로 9만명의 적병을 물리친 지평리(砥平里) 전투의 모든 것을 이 책 한 권에 담았다. 저자는 말하기를 ‘지평리에서 중공군을 막을 수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반대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공산화되었기 십상인 상황이었다’ 고 말하는 그는 1951년 2월 18일 영하 23도의 지평리 벌판에서 미 제1기병사단 제82포병대대 소속인 18세의 소년으로 ‘내가 목격한 쓰라린 전사를 후대에 전함으로써 반복의 우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고 다짐했던 57년 전에 내가 내게 약속한 숙제를 80을 바라보는 이제야 풀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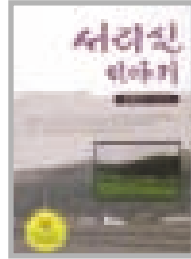
책갈피



아기 봄

무안문화원 발행

이 책은 무안문화원 서오근 원장이 펴낸 동시해설집으로서 그동안 아홉 권의 동시들을 쓴 가운데 몇 편을 간추려 펴낸 시집이다. 저자는 ‘어린이 여러분이 동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대한 즐거운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기를 빌겠다’고 자서에서 밝히다시피 지나나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깊은 애정을 쏟아왔다. 서오근 원장은 1977년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하였으며, 한정동아동문학상과 한국아동문학 공로상, 전남문학상, 전라남도 문화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무안문인협회 회장과 전남문협 수석 부회장 및 전남문협 회장(직대)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동시집 ‘산들바람’ ‘바람아 바람아’ ‘꽃꽃 한 송이’ 등 16권이 있다.



서리실 이야기

정읍문화원 발행

이 책은 정읍문화원 김희선 사무국장이 펴낸 수필집으로 ‘서리실’은 작가가 오랜 떠돌이생활을 청산하고 정착하여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다. 월간(文藝思潮)수필부문 신인상 당선으로 문단에 등단하여 ‘자녀노을’ ‘가을밤에 부르는 노래’ ‘대나무의 함성’ ‘추억의 편린’ 등 많은 수필집을 냈다. 금년 초 제5회 한국농촌문학상 수필부문 본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희선 국장은 현재 정읍시사 편찬위원 겸 집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품해설에서 ‘기교와 꾸밈을 거부한 수필가의 순수한 수필’이라고 평가한 어느 수필가의 말처럼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을 곧 이곧대로 꺼내어 엮어놓은 ‘서리실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아름다운 한국의 화장실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발행

우리 생활 주변에서 눈에 띄게 변한 것 중의 하나가 공중화장실이다. 10년 전만 해도 화장실은 웅색하고 불결하며 용변만 해결하면 빨리 떠나야 하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몸과 마음을 기쁘게 씻어주는 장소,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즐거운 공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저절로 떠오르고 여유 있게 사색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변화했으며, 2007년 11월에는 전 세계 70여 개 국을 회원으로 하는 세계화장실협회를 우리나라 주도로 창립할 정도로 우리의 화장실 문화가 선진화 단계를 넘어 국가경쟁력 면에서도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음은 펍 다행한 일이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회장 이수홍)가 ‘아름다운 화장실운동’을 전개하면서 1999년 제1회부터 2007년 제9회까지의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각각 화장실의 전경을 비롯해서 실내 사진을 싣고, 전통화장실과 사찰화장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화장실의 변천사 및 중국, 일본의 화장실문화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한국문화원연합회 2008 제4차 이사회



주요 현안보고

한국문화원연합회는 9월 26일 오후 4시 경북 문경문화원 대강당에서 '2008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보고로서 '2007 문화비전 선언'을 통해 매년 10월 10일을 '문화원의 날'로 제정한데 따라 금년 '문화원의 날' 기념식을 10월 10일 전주 경기전에서 갖도록 하는 등 제1회 지방문화원의 날 행사와 '실버문화축제 2008 전주' 개최에 따른 계획안을 비롯해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하는 2008 전국농업인풍물경연대회 및 건국 60주년기념 국토대장정사업 참여 결과보고, 국고보조금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예산지원 등에 대한 사업보고와 함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신현국 문경시장과 고오환 문경시의회 의장, 문경문화원 임원 등 문화가족들이 이사회에 참석한 최종수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신현국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문화원연합회 임원여러분이 문경에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 해 모시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문경을 잊지 말고 다시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등 문경의 홍보도 잊지 않았다.

2008 제2차 운영위원회 및 연구자문위원회



'문화원의 날' · '실버문화축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9월 1일 오전 11시부터 연합회 7층 회의실에서 '문화원의 날' 및 '실버문화축제'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최종수 회장은 개회 벽두에 강진문화원 원용호 원장의 임기만료로 그 후임으로 참석한 신태균 영암문화원장을 소개한데 이어 2008실버문화

축제가 10월 10일부터 3일간 전주에서 개최하는데 전주시와 당 연합회 간에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기간 중에 '문화원의 날' 행사도 함께 열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하였다

장재찬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고상권(영등포) · 이원달(강동) · 김문경(구리) · 정정희(당진) · 서 승(전

주) · 신태균(영암) · 차판암(합천)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상호 총무국장은 연합회와 전주시가 공동주최하는 2008실버문화축제를 설명하면서 복권기금 1억 5천만원과 전주시 부담금 1억 5천만원, 도합 3억원의 예산으로 공연형 프로그램과 문화원 간 연계프로그램 및 참여형 프로그램 발표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서 문화원의 날 행사와 개막식 의식행사, 기념축하 공연 등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 제1회 문화원의 날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에서 송은옥 연구원은 4천만원의 총 예산 중 시상금으로 1,7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하고 각 분야별로 엄격한 심사규정 및 기준에 의해 수상자가 결정되므로 시상의 격식과 대내외에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어 우수 문화원 지원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주게 되므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재원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정부학회 신두섭 책임연구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을 재원확충의 1차 방안으로 제시하였고, 2차 방안으로는 설립 기초 및 목적 사업 등에서 자치단체의 문화재단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재정 지원에서 현격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방안 등의 요약 보고를 한데 대해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문화원이 수익사업을 비롯해서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8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한편 9월 2일 오전 1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연구자문위원회를 가졌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을 비롯해서 표재순 · 강진갑 · 광효환 · 권병용 · 김종규 · 윤성진 · 이종인 · 임연철 · 조정국 · 표원섭 연구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제1회 문화원의 날 기본계획 중 우수 프로그램 3개 부문을 2개 부문으로 축소하고 언론부문의 부상을 채택하였으며 실버축제 운영과 숙박문제를 비롯하여 실버세대에 대한 인식전환 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008 제3차 시 · 도지회사무처장회의



한국문화원연합회는 9월 17일 오후 3시부터 연합회 7층 회의실에서 2008제3차 시·도지회사무처장회의를 열고 '2008문화원의 날' 지역홍보관 설치·운영 계획안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 벽두에 최종수 회장은 '문화원의 날' 행사는 금년이 첫 번째이면서 실버문화축제와 연계 행사로 치러지는 만큼 어려움이 크다고 전제하면서 지방문화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 각 지회 사무

처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보관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회 및 문화원 별 부스 설치와 인원의 배치, 홍보예시문항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폭넓게 점검해나갔다.

2008문화의 달 행사

－ 행사추진위원장에 박영수 전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이 ‘소통-문화의 길 열다’ 주제로 3일간 직지의 도시 청주에서 열려

2008문화의 달(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10월 17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청주시 일원에서 ‘소통 - 문화의 길 열다’ 라는 주제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1972년에 시작한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지역의 문화자생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2003년 대구를 시작으로 매년 지역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는 그 여섯 번째로 청주에서 열렸다.

문화의 달 행사는 지역의 문화예술인 등을 추진위원으로 위촉, 민간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문화의 달 행사는 전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과 청주문화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영수 씨가 ‘2008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든 행사를 주관하였다.

문화훈장 서훈

한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고문, 김준식 원장(안동), 박영수 전위원장(청주), 김계담 전위원장(서귀포) 문화훈장 서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의 날’ 기념식인 10월 18일 오후 4시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08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에 대한 ‘문화훈장’ 서훈과 ‘제40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및 ‘2008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서훈 대상자와 ‘제40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및 ‘2008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는 전국 문화예술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일반국민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선정 및 정부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이 중 문화훈장 서훈대상자는 총 25명으로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4명이 최종 확정되었다.



권용태 고문, 보관문화훈장 서훈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한 권용태 한국문화원연합회 고문은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전통문화 계발·보급·전승·선양에 진력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였으며 활발한 시인 활동으로 문학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김준식 안동문화원장, 옥관문화훈장 서훈

안동문화원 감사·부원장·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문화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안동민속축제의 활성화 등 지역문화 발전에 진력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박영수 전 청주문화원장, 화관문화훈장 서훈

청주문화원장 활동을 통해 독특한 지역축제를 창출해 내는 문화계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수필가로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해 왔다.



김계담 전 서귀포문화원장, 화관문화훈장 서훈

서귀포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향토사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과 각종 축제 등 수많은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여 제주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 전국향토공모전 국무총리상에 이결재(공주시청)씨

수년동안 공주시역의 사투리와 민속 · 생활용어 채록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인 향토사 발굴과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제23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공주시의 사투리, 민속용어, 생활용어 채록보고서」를 응모한 공주시청의 이결재(51세, 李傑宰)씨가 대상인 국무총리상에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자료수집의 성실성을 통해 완성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려고 노력한 보기 드문 자료집이면서 향토사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주어지는 최우수상에는 「울산 목장에 대한 연구」를 쓴 이정환(李丁漢) 울산 현대청운중학교 한문교사와 「烏金簪神考」를 쓴 김강산(金剛山) 前태백문화원장이 각각 당선되었다. 대상에 400만 원이 주어지는 등 총 2천여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이번 시상식은 11월26일 경북 울진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수상현황은 아래와 같다.

■ 제 23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심사결과

부문	시 상	상금 (만원)	성 명	제 목
부문 없음	대상(국무총리상)	400	이결재(공주시청)	공주시의 사투리, 민속 · 생활용어 채록보고서
향토 문화 논문 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50	이정환(울산 현대청운중교수)	울산 목장에 대한 연구
	우수상(국사편찬위원회장상)	150	김치웅(기장문화원 이사)	차성가의 명칭, 종류 및 작자 연대 등에 관한 연구
	우수상(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150	신상구(천안중학교 교사)	항일운동가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장려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100	김성호(한국외대 대학원재)	독도수호에 있어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장려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100	조중헌(논산향토사연구회장)	계룡사 폐사 수석사에 대한 찰고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50	김강산(전 태백문화원장)	오금잠신고
	우수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장상)	150	이재완(독도박물관 학예사)	울릉도 민가의 공간 구성과 거주관행
향토 문화 자료 부문	장려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100	주소용(경북대 대학원재)	일제강점기 대구지역의 독서활동 실태
	장려상(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회장상)	100	명수남(태안문화원장)	태안 도요지 유적 지표조사 공로상
공로상	개인부문(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100	김종우(경상북도지회장)	
	개인부문(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100	이상인(울릉문화원장)	제 목

원장동정



송파문화원장에 이영우 씨

송파문화원은 지난 9월 11일 문화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영우(李瑛雨 68) 씨를 제5대 원장으로 추대하고 9월 19일 같은 장소에서 김영순 송파구청장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서울지역 문화원장, 시의원 및 구의원, 문화재위원,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임 이 원장은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심이며 전통문화를 발전 · 계승시키는 곳으로서 서울같이 동일한 문화권에서 특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어려우나 송파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문화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연세대 법정개학 법학과를 졸업한 이 원장은 1964년 국내 최초로 기발을 해외에 수출한 사업가로서 현재 (주)세일콘과 세일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화문화원장에 우광덕 씨

강화문화원은 지난 8월 30일 강화군노인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원장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2명의 후보자가 경선한 가운데 문화원 부원장으로 활동해 온 우광덕(禹光德 63) 씨가 60.5%를 득표함으로써 제8대 원장에 선임되었다. 신임 우 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강화지역 사회에 새로운 문화의 르네상스를 만들어 전 군민이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토록 노력해 나갈 것과 문화원 원사를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양문화원장에 한학수 씨

고양문화원은 10월 16일 원당농협 대강당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부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학수(韓鶴洙 64)씨를 제8대 원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한 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6년간의 부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원 숙원사업과 문화가족 화합을 위해 열성적 일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 원장은 동국대 경영학과 2년을 중퇴한 후 경희대 관광대학원 국제회의 기획전문과정과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최고위 법률경영자과정, 경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경제, 투자분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주)두기푸르스 대표와 한 국환경운동본부 부총재, 고양시생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장수문화원장에 강철규 씨

장수문화원은 지난 7월 30일 장수읍 한누리전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강철규(姜鐵圭 67) 씨를 제5대 원장으로 추대하고 9월 2일 같은 장소에서 장수군 장재영 군수와 장수군의회 오재만 의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이복용 전북도지 회장을 비롯해서 유관 기관 단체장과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강 원장은 취임사에서 '의 암 주논개를 비롯한 2덕 3절 5의의 장수군 자랑과 토속 전래문화를 계승, 현대적으로 재해석 발전시키고 가야시대의 문화유적 발굴 보존에 힘쓰며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행사 개최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교원대 대학원을 졸업한 강 원장은 초등학교 교사와 교감, 교장을 거쳐 장수교육청 장학사로 교육계에 몸담아 왔으며 국제로타리 3670지구 회장과 장수궁도회 회장, 장수사진동우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장동정



구례문화원장에 우두성 씨

구례문화원은 지난 7월 25일 구례종합사회복지센터 섬진아트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원장에 우두성(禹斗晟 56)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제13대 원장으로 선임된 우 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선인들의 발자취를 밝혀 후 세에 귀감이 되도록 할 것이며 향토사 연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참여하는 문화원 상을 정립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히면서 문화원 내에 각 분과를 만들고 운영위원을 두어 그 분과를 책임지고 활성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면 서 주민 간에 화목하고 이해하는 풍토조성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신임 우 원장은 문화원 부원장으로 있 으면서 지리산자연생태보존회장과 푸른구례21협의회장, 멸종위기종복원자문위원장 등 지리산과 섬진강의 자연환 경을 보전하는 지역 환경운동가로 활동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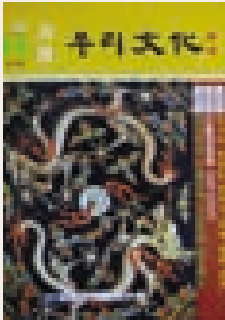
순천문화원장에 유길수 씨

순천문화원은 지난 9월 23일 문화원 강의실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2명의 입후보자가 경선한 가 운데 52.9%를 득표한 유길수(俞吉洙 63)씨를 제5대 원장으로 선임했다. 10월 2일 순천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정원강 전라남도지회장과 순천시의회 정상윤 · 기도서 · 송혜경 · 정병희 · 강형구 · 김봉환 의원을 비롯해서 순천 청암대학 강길태 학장과 광양, 나주, 구례, 영수, 고흥, 강 진문화원장 등 많은 문화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바 있는 신임 유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원초적 문화 현상을 끌어내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순천문화원이 예술의 전당으 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봉길 울주문화원장 별세

지난 9월 3일 오후 6시 25분 울산광역시 울주문화원 반하(般荷) 최봉길(崔奉吉 60) 원장께서 유명을 달리했다. 고 최봉길 원장은 1949년 생으 로 진주교대와 동아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과 국민일보 영남본부장 등으로 활동해 왔으며 작년 9월 울주문화원 임시총회에서 제3대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영결식은 9월 6일 오전 9시30분 울산시민전문장례식장에서 울주문화원장위원장 이두철 울주문화 원 명예원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장지는 울산광역시 옥동공원묘지이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김형주 여사와 2남 2녀가 있다.

연합회에서 소식을 기다립니다.



1988년 11월 1일 발행되었던 창간호 우리문화를 기억합니다. 편집도, 내용도, 만들던 사람 도, 시대에 따라 많은 것이 변하였지만 그 때의 그 마음만은 그대로입니다. 작은 소리일지라도 귀 기울여 듣고 나누는 데 노력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 모든 원고는 한글 · 워드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전화로 문 의 바랍니다. 그림 파일은 한글문서에 붙인 형태가 아닌 이미지 파일(jpg나 bmp 등)로 받고 있 습니다. 가능하면 파일 용량이 큰 것으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원 소식을 제외한 글은 편집부로 문의하신 다음 원고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부 02) 704-4311
주간 채강희 010-8631-2809 achae@naver.com
팀장 문선희 011-9017-3486 lune20@gmail.com